

윤석열 대통령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

윤석열 대통령, 美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대표단 격려 만찬



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도 높게 평가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바이든 美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2일 저녁 관저에서 로이드 오스틴 美 국방장관, 찰스 브라운 美 합참의장 등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미측 대표단을 격려하고, 국제 안보 정세와 한반도 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이번 SCM은 한미동맹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미국의 굳건한 안보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과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오판하여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포함한 어떠한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지난 7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킨 이후 정보공유, 협의체계 구축, 공동기회와 공동실행력 강화를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평가하며, 美 전략 자산 전개 확대 등 관련 후속조치가 속

는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미 NCG 협의는 바이든 美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로서, 이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미 양국 청년세대들 간에 우주, 사이버 영역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한미 및 한미일 간에 그러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오늘 만찬에 미 측에서는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III) 국방장관,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대사, 찰스 브라운(Charles Q. Brown Jr.) 합참의장, 존 아퀴리노(John C. Aquilino) 인도태평양사령관, 폴 라카메라(Paul J.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 일라이 래트너(Ely S. Ratner) 인태안보차관보 등이 참석했으며, 우리 측에서는 신원식 국방부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이인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욱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최광수/기자

경기도, 17일 세계유산 남한산성 학술심포지엄 개최

2023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학술심포지엄 개최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17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세계유산 남한산성, 서사와 해석의 미래-논증과 창작의 새로운 자리매김’이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내년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남한산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미래지향적인 가치 발굴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남한산성에 대한 대중 인식의 현실과 주요 역사적 사건의 실상을 재검토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왔던 김삼헌과 최명길, 노론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조망한다. 이후 세계유산적 시각에서 건축학적 가치를 벗어나 문명 진화론적 해석의 역사로서 남한산성, 창작의 시각에서 자유로운 해석을 통해 재탄생하는 남한산성을 조명한다.

총 6개의 주제 발표는 ▲양훈도(인천 일부 논설위원) ‘남한산성 교육문화 콘텐츠 후기(後記) 분석의 함의’ ▲오수창(서울대 사학과) ‘병자호란과 남한산성’에 대한 인식과 역사적 실상의 재검토’ ▲우경섭(인하대 사학과) ‘김삼헌의 현실론과 최명길의 명분론’ ▲박현모(여주대학교 세종리더십 연구소) ‘노론 160년 장기집권의 비결과 한계’ ▲김기봉(경기대 사학과)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에서 글로벌명명유산으로’ ▲우정권(단국대 자유교양대학) ‘허구적 창작의 자유로 재탄생하는 남한산성’으로 구성되며 발표 후에는 발표자 상호 심층 토론과 방청객이 참여하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에는 경기도민, 학술관계자, 창작자 등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전 신청과 현장 신청 모두 가능하다.

김찬광 경기도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소장은 “세계유산 남한산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미래지향적 활용을 논의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남한산성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새로운 가치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상/기자



경북도 기후변화로 인한 농촌 위기, 대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북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위해 농업대전환 선도적 추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사과 생산단수(10a당 생산량)는 1,282kg으로 지난해와 평년 대비 각각 21.6%, 15.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국 사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경상북도 지역의 불철 냉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긴 장마, 가을 우박 피해 등의 기상 악재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다.

올해 경북 북부 지방에는 6월 25일부터 7월 중순까지 900mm 가까운 비가 내려 1973년 이래 50년 동안 대구경북 장마 기간 평균 누적 강수량(292.2mm)의 3배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다.

또한 10월 말 안동 등 6개 시·군에서는 예년과 다른 굵은 우박으로 1,083ha 3,0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10년 전인 2014년 조사에서 농업인의 85.7%는 기후변화를 인지하고 있으며, 85.8%는 향후 10년 이내 농업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는 농업과 농어민이 기후 위기에 가장 심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더 부각됐다. (2021 국가인권위원회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

경산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A씨는 “봄에 꽃피는 때는 냉해로 꽃이 다 떨어지고, 여름철 잦은 비와 수확철 고온으로 인해 포도송이 반 이상이 탄자로 녹아내리는 등 아무리 사과의 힘으로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WMO(세계기상기구)는 극단적 기후변화가 더 자주, 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기후의 급격한 변화는 농수산물 생산지의 급격한 변동을 일으켜 농가의 과도한 시설투자 및 농작물 피해 또한 강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사과의 경우 우리나라 재배면적이 1982년 4.2만ha에서 2007년에는 3.2만ha로 약 1만ha가 감소했으며, 고랭지 배추의 경우는 10.2ha에서 0.5ha로 95% 이상 감소했다.

이런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209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사과를 재배할 곳은 강원도 일부 지역에 한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후변화와 농업의 위기는 농민의 위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위기와 식량 안보의 문제도 야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기후변화로 수 십 년 내 전 인류가 ‘식량 안보’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2050년에는 주요 곡물 가격이 최대

23% 상승할 것”으로 보고했다.

유럽의 2018~2022년 평년 곡물 생산량은 4,220만 톤이었다. 하지만, 폭염과 가뭄으로 올해 생산량은 3% 이상 줄어든 4,090만 톤으로 예상되며, 세계 4위 옥수수 생산국인 아르헨티나의 작황 부진으로 세계 옥수수 공급량은 13.9%나 줄었다.

또한 세계적 쌀 생산국인 인도, 태국, 베트남은 가뭄으로 쌀 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헝가리 등 19개국은 이미 식량 수출을 금지했으며, 아르헨티나 등 8개국도 식량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제 식량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조천호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한반도의 기후 위기는 식량 위기로 귀결될 것이라며, 연간 곡물을 1,700만 톤을 수입하는 식량 자급률이 32%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는 향후 20~30년 식량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했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농업인구가 가장 많고 전국 쌀 생산 4위(511만톤), 사과, 포도, 복숭아, 고추, 참외 등과 한우·육우 생산량 1위, 콩·마늘 2위, 양돈 3위 등 대한민국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태계의 변화는 경상북도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위기를 타개하고, 농업 생산성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경북도는 ‘농업대전환’계획을 수립하고 농정 혁신에 나서고 있다.

농정 혁신 정책 추진을 위해 경북도는 2022년 농업대전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경북 농업 관련 최고 전문가로 불리는 손재근 경북대 명예교수를 식량안보 정책자문관으로 임명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미래, 식량 보안과 관련된 지역 농업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경북도는 ‘공동영농 체계 구축’으로 농업의 첨단화 및 규모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농업 생산성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청년들의 농촌 유입과 기후변화에 따른 농촌 생태계의 전환을 함께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2023년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문경지구(영순면 울곡리 일원)는 올해부터는 110ha에 벼 대신 콩, 양파, 감자를 이모작하고 있다.

마을법인 책임하에 들녘이 경영되고 마을주민은 회원으로 주요 영농활동에만 참여한다. 이를 통해 단지 내 농업소득은 기

준보다 3.3배 가량 늘어난 26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형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식량 위기 시 연계를 살생상 기제로 바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지역별 여건에 맞춘 ‘특화형 혁신모델’ 사업을 추진한다. 청송, 영양 등은 넓은 들녘은 없지만 노지 과수와 원예작물에 대해 기후 및 시장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농촌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첨단화와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 대폭 확대를 대비해 흉수 출하 및 판로 애로 등 이례적 상황에서도 농산품 유통과 농가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가격 변동성이 큰 축산사료 수입을 줄이기 위해 지역에서 길러낸 조사료를 활용하거나 벼 재배 농가의 사료작물 생산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사료 원료 수입에 따른 식량 안보 문제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축분의 고체연료화를 통해 에너지 자원 확보와 토양 부영양화, 지하수 오염 등 생태계 보호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농업은 생산자이든 생생산업이고, 국민에게 식량창고와 다름없는 산업이다”라고 강조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량의 급격한 변화와 식량 주권의 문제는 기존 농업과 농촌에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다면 절대 벗어날 수 없다”며 농업대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 “모든 노동 중 가장 기쁨이 많은 노동은 농업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로 기쁨이 아닌 걱정의 눈으로 우리의 농촌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 그 걱정의 눈을 거두고, 우리 앞에 닥친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의 격랑을 이겨내기 위해 ‘농사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 대전환의 담대한 흐름에 모두 힘을 보태야 할 때이다.

윤근수/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순천대 지역 발전 거점대 집중 육성”

글로벌대학 본지정 환영 성명...도비 1천349억 투자계획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병운 순천대 총장과 함께 “국립순천대학교의 ‘글로벌대학 본지정’을 적극 환영하며 순천대를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하는 거점대학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순천대 글로벌대학 본지정 환영성명”을 통해 “200만 전남도민 모두가 이뤄낸 쾌거”라며 “지난 3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선정과 이번 글로벌대학 본지정에 이르기까지 ‘지역 대학과 함께 만드는 전남의 미래 100년’을 목표로 온 힘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도민과 지역역량을 모아준 순천대 총장, 교직원, 학생, 빛나는 비전을 함께 해준 국회의원, 도의회, 시장·군수, 산업계 등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순천대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대학30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역대 최고 규모인 1천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지역대학을 전략산업과 연계해 RISE 체계의 선도대학으로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순천대를 비롯한 10개 대학을 지정했다.

순천대학교는 특화 분야 감소지역 기업 육성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스마트팜, 애니메이션, 우주항공·첨단소재 등 지역 3대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체제를 전면 개편하고, 지역 수요에 대응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강소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지난 6월 전남에서 유일하게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된 순천대는 전남도-시군-산업계 등과 협업을 지역 산업 발전 체계와 연계해 3대 특화 분야 강화, 지역 정주형 지·산·학 캠퍼스 구축 및 지

역·대학 동반성장 전략 등을 담은 실행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 글로벌대학으로 본지정 됐다.

전남도는 지난 6월 전남도-순천대-산업계-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글로벌대학 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해 순천대,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실행계획서 작성, 협의 방안 마련 등 ‘글로벌대학 30’ 본지정을 총력 지원했다.

특히 도비 1천349억 원(직접투자 500·공동참여사업 849)을 집중 투자하고 관련 지역산업 육성과 4조 3천 948억 원의 연계 발전계획을 제시하는 등 압도적 지원으로 순천대 본지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앞으로 글로벌대학30 전남도-순천대학교 거버넌스를 운영해 3대 특화 분야 등에 대한 대학의 발전전략과 지역산업을 총괄해 연결하고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과 대학이 나아가 새 방향을 만들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모든 지역대학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RISE 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겠다”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성공적 혁신모델을 지역대학과 공유해, 도내 대학의 추가 선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대학의 담대한 혁신과 위대한 도전을 뒷받침하고, 진정한 동반성장으로 지방소멸 공동위기를 극복하는 등 ‘세계로 준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겐다”고 강조했다.

이병운 총장은 “순천대의 글로벌 대학 본지정은 도민의 승리”라며 “국립대 그늘 속에 안주하지 않고, 지방시대 주역으로서 지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뛰어 글로벌대학의 선도모델을 만들 겐다”고 밝혔다.

박종배/기자

2023 세계유산 남한산성 학술심포지엄

2023년 11월 17일(금)
13:00~18:00

민체통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

역사를 품어내는 일반시민,
역사학자, 실용적 환경

우리는 왜?
시대주의 골목은 피로하며
지국사의 획기적 시기 시련을 어떻게
경험하는 지속적인 경행의 지 무 행가?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영광도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영양도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영암도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영주도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영월도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영천도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영동도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영서도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영남도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영북도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영서도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영남도

문의: 경기문화재단 기획지원팀
문의전화: 031-1234-5678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현장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도민이 안전한 경북 실현에 소방공무원이 맡은바 책임 다해달라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월 7일 화요일부터 실시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0일 금요일 안동소방서와 소방학교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10일 금요일 오전에 안동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화재 예방 대책, 소방시설 점검, 소화용수 시설 관리, 전통시장 화재대비 점검 활동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현안을 점검했다. 오후에는 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추진상황'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지휘역량강화센터와 실화재 훈련장을 직접 둘러보며 시설과 장비

를 점검했다. 박순직 위원장(경주4)은 경북도내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꼭 필요한 소방안전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소방안전교실' 운영을 확대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백순창 부위원장(구미8)은 안동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온라인 홍보매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방학교의 교육과정별 외래강사 초빙 현황에 대한 질의에서 경북도내 우수한 강사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감사 인력풀 정비를 주문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소방서의 차

와 소방학교 교관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안동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의 전통시장 화재대비 점검 상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우청 의원은 공용주차장 입구에 고정되지 않은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소화기함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지나가야 할 출입구에 일반 차량들이 무단 주차 중이었고 '소방차량 진입구간' 또는 '무단주차 금지' 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가건물과 무단적치물로 인해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를 곧바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다며 화재 발생에 취약한 실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단속을 촉구했다. 허복 위원(구미3)은 안동의 예산면과 녹전면, 와룡면, 임동면에는 관할 소방대가 없이 전담의용소방대로 운영 중인 점을 지적하며, 임동면과 예산면의 총 면적은 안동 전체 면적의 21%를 차지하므로 이 두 지역 사이에 지역대 추가 설치를 주문했다. 또한, 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비연고지 직원 대비 교직원 숙소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박순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4)은 "여기저기 못한 재난과 재해로 인해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경북 실현을 위해 현장 소방공무원들이 맡은바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녹지정원국 행정사무감사

십리대숲 유지 관리 등 심도 있는 행감 펼쳐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3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녹지정원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10일, 환북위는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아 십리대숲, 아우돌프 자연주의 정원, 황톳길 조성 현장 등을 둘러보고, 심도 있는 행감을 위해 감사자료를 수집하는 등 발표의정을 펼친 바 있다. 환북위 위원들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촬영한 사진들을 감사자료로 활용하는 등 현장감 있는 질문을 이어갔다. 이영태 위원장은 "국가정원 내 황톳길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을 시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맨발 걷기 주의할 점, 준비사항 등을 잘 안내해줄 것과 파상풍, 습진 등 다양한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과 위생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아우돌프 자연주의 정원 관리 지연에 대해 질의하고, 마스트가드너 양성과 한국기후에 맞는 식물 식재 검토, 토양, 배수 등 식재 환경 개선에도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방인섭 부위원장은 "2028년을 목표로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와 관련하여 삼호지구, 삼산·여천 매립장과 연계 이동수단 부족과 관광인프라 문제를 지적하고, 인근 관광지와의 연

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망 구축 등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지락 의원은 "십리대숲과 관련하여 관리자 부재에 대해 지적하고,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관리와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손명희 의원은 "십리대숲 유지관리 비용이 2억에 불가하다 지적하고, 국가정원을 알리기 위해 부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으며, 예산의 증액, 바람길 차단, 대숲 휴식기 도입, 홍수 대비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복토 추진, 국가정원만의 차별화된 야간 경관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지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의 작은 사업변경 및 예산 증액, 수목원 그린벨트 승인 및 정상개장, 수목원 조성에 앞서 선진지 견학, 소나무 재선충병 관리,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 설치 의무화 등"을 주문하고 건의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시행했다. 이영태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들 중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과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황규진/기자

안양시의회 음경택 부의장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 수상

안양시의회 음경택 부의장이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서울)에서 열린 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가 주관하고 권영세·양정숙·최승재 국회의원과 등이 공동 주재한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부문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사)선진교통문화연합회에 따르면, 보행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횡단보도, 신호등, 보행자우선 횡단보도의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하며, 보행자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교통법규 준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음경택부의장은 안양시 최초로 7년여의 노력 끝에 갈산동의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교 길 조성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 안전과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 우산 설치를 적극 추진했으며, 안양시 보행환경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보행 안전지도사의 운용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보행환경 개선에 이

바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음 부의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남녀노소 등 사회적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는 보행자의 날 11월 11일을 맞이하여 보행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보행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보행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캐릭터 및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 및 2023 협·단체장 100인이 선정한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을 수여 했다고 밝혔으며 국회의원 13명,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9명을 2023 수상자로 선정했다.

신우용/기자



부산시의회, 이승우 의원 정당 현수막 철거 작업 직접 참여

불법 정당 현수막 철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

도심 거리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의 철거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지난 10일 오전 연산교차로에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당 현수막 철거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이승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설치·표시는 지정계시대에 게시하도록 명시했고, 읍·면·동별로 1개이하, 혐오·비방의 내용 및 문구는 금지토록 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 10월 11일부터 시행되어 조례 내용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강제 철거가 가



능해졌다. 이에 이날 이승우 의원과 부산시 부산 12개 구·군이 단속을 실시했고,

150여 개의 불법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승우 의원은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로 정당 현수막 철거 작업을 실시한다고 하여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작업에 같이 참여하게 됐다"며, "거리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그동안 시민들이 불편함이 해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현수막 철거 작업 중에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분은 속이 다시 시원하고, 현수막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 통행에 불편했다며, 철거 작업을 환영해주는 시민분들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이 의원은 "불법 정당 현수막 철거 작업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조례 규정대로 정당 현수막이 설치·표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희태/기자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 동구1)는 11월 13일 오전 10시 시의회에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태우 부위원장(수성구5)은 소속 시설인 대체인력지원센터의 '국고지원시설 종사자 유급평가 임금보전' 사업 허위 정산 건을 지적하며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이 악용되는 부정사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황순자 위원(달서구3)은 올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경제선진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와 관련해 행복진흥원 사회복지서비스원단 초등학생 경제선진지능인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청년센터 경제선진지능인 청년지원실적이 4건에 그치는 등 부진한 이유를 따져물으며 복지사각지대의 경제선진지능인에 대한 대구시의 지원이 늦게 시작된 만큼 지원대상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정일균 위원(수성구1)은 통합 출범된 행복진흥원의 경영수지 적자화 관련 내년도 국비 지원금 전액 삭감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결혼 장려 프로그램 '청바지 아카데미'의 모집 인원 대비 실 참여율 저조를 지적하며, 긍정적 결혼관·가족관 확장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구성을 통한 내실 있는 아카데미 운영을 당부했다. 하중환 위원(달성군1)은 장애인 고용 모범기관이 되어야 할 행복진흥원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미달 상황을 지적하며,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장애인 스포츠단'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행복진흥원 통합 후 구축된 홈페이지의 사업소개 내용 등 콘텐츠 구성·내용의 빈약함과 부실 홈페이지의 직제명 표기 차이 등을 지적하며 대표 홈페이지의 알찬 콘텐츠 구성과

통합된 조직에 대한 혼선 없는 정보제공을 당부했다. 김재용 위원(북구3)은 본부 내 결원 현황과 관련 우수 인력 영입을 위한 적절한 직급 및 보수체계 구축 등 인사 운용상의 개선 노력을 주문하고, 소속시설인 종합재가센터(2개소)의 복지부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폐지 가능성, 복구센터의 50%가 넘는 결원율 등을 따져물으며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숙 위원(동구4)은 전국 최초 여성안전체험관을 표방하며 구축된 여성안전체험공간 'SISO'가 대구시의 안전정책 홍보관 정도에 머물고 있는 현실태를 질타하며, 실질적 체험 콘텐츠 보강 등을 통한 이용활성화에 힘써 주길 당부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소속시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처리 방안과 직장 내 괴롭힘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윤근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행민 | 편집국장: 최재은 | 부회장: 임석경 | 청소년책임기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광고국: 1899.9659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제부: 내선 (114)	오리엔트부: 내선 (118)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포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식없는 공공기관 토지매입 혈세 낭비의혹! 논란

배품이 더 큰 공공기관 토지매입의혹 논란

토지매입비50억원, 토지정화비용 100억원 예상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관규)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 예정지인 미군반환 공여지 '캠핑님들'(동두천 상동동 일원) 토지 매매 등과 관련해 이성호 의원(국힘,용인9)이 날선 질의를 펼쳤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토지 매매업무 진행과 관련해 지난 2022년 5월27일, 경기도 부천시 현 사옥에서 경기도 동두천으로 이전하기 위해 63억원가량 소요되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성호 의원은 "재단이 당초 동두천시와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양오염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체

결한 것인지? 인지했다면 언제인지? 그리고 계약을 하기 전에 알았다면 다른 곳을 선정했어야 했다"면서 "계약을 한 후에 인지했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토지를 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 하였거나,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토지조성을 진행한 것은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형법상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

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땅값이 60억 원인데 토양정화비용이 100억원이 예상되고, 토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서 토지의 토양오염도 조사 및 정화는 동두천시가 실시하고 그 비용은 추후 양 기관이 합의하며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 50억원을 도비로 부담하는 것이 말이 되나? 땅값보다도 많은 토지정화비용을 들어 동두천,으로 이전을 하는 것은 합당한 처사라 볼수 없는 의혹이 제기 된다면서, 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관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계약당시 재단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재단측은 "계약 당시에 오염된 땅을 사지 않겠

다는 직원들의 시위라든지 이런 뜻을 경기도에 계속 전달해왔으며, 토지를 정화해 북부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더 큰 효과가 나올수 있을 것이라고"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후 문제가 불거지자 특약 사항에서 토지의 토양오염도 조사 및 정화는 동두천시가 실시하고, 그 비용은 추후 양 기관이 합의하며 부담한다고 돼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재단 홍보팀 경영기획실장에게 "동두천 토지 매매 업무 진행 중 토지매매 관련 내용은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님으로 돼 있는데, 근거가 무엇이나"고 질의하자 홍보실장은 "2022년 매매에 앞서 2021년 기본 재산을 헐어서 이 토지 매매를 위해 63억 원을 만들 때는 이



사회 의결사항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성호 의원은 "상법 제393조 제1항에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사회 결의는 회사운영상 업무전반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재단 정관에 '기본재산의 취득'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전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범상/기자

2023 경기도형 탄소저감 예술캠페인<별그림자 페스티벌> 개최

탄소저감을 통한 환경보호 실천을 독려하는 예술캠페인 '별그림자 페스티벌' 운영

경기문화재단은 11월 18일 16시부터 22시까지 전곡선사박물관에서 2023 경기도형 탄소저감 예술캠페인 <별그림자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경기도형 탄소저감 예술캠페인은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 보호 및 탄소저감을 위한 실천적 행동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탄소저감을 통한 환경보호 실천을 독려할 수 있는 예술 캠페인을 발굴하고 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다채로운 예술 캠페인을 도민에게 제공하는데, 천체관측/공연/강연/체험/전시 총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먼저 관측 프로그램은 11월 18일 관측 예정인 사자자리 유성우와 가을 별자리 관측한다. 현직 경기도 지구과학 교사로 구성된 '지구과학 야외 학습 연구회'의 천체 이야기를 들으며 관측까지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강연 프로그램 '탄소저감, 달콤한 별빛에 반하다'는 기후변화와 별자리(천 시립과학관 관장 이정규)와 '오늘의 밤하늘/사자자리 유성우'(판교등학교 권홍진)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된다. 또한 조영박물관과 협업해 '빛공해,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이야기'를 운영한다. 《빛공해 사진전》을 관람하고 직접 조명을 만드는 체험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재활용·재사용·재활용에 대해 알리고 교육하기 위해 폐자원을 활용한 만들기 체험과 환경을 주제로 그림자극, 샌드 아트, 바디 웨도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제공한다.

한편 야외 푸드존에서는 체온유지를 위해 따뜻한 잔치국수가 제공될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페스티벌 취지에 맞게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한다. 방문 관람객은 식음에 필요한 텀블러 및 국수를 먹을 수 있는 용기를 지참해야 한다. 탄소를 줄이는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소요산역과 전곡선사박물관을 왕복하는 노선으로, 15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단순한 캠페인성 행사가 아닌, 강연, 전시, 체험 등을 통해 탄소저감을 체감하며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최근 3년간 채권 소각규모는 무려 1,774억원

김태희 도의원 "채권 소각자 교육 강화와 현실화, 채무자 재도전 기회 제공하는 재기 지원 대책도 시급"

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0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와 고유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채권 소각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채권 소각자에 대한 교육은 강화하고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신보의 채권 소각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채권 소각자는 1만 9천명에 육박하지만 재기 지원 교육을 받은 사람 수는 100명도 채 되지 않았다"라며, "채권 소각 정책을 추진했는지 채권 소각자에 대한 교육과 대책은 소홀히 다루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신보의 최근 3년간 채권 소각 금액은 2021년

462억원, 2022년 603억원, 2023년 70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누적 채권 소각 금액이 1,774억원에 달한다. 또한 채무관계자 수도 2021년 4586명, 2022년 6389명, 2023년 7995명으로 늘어나 누적 인원은 2만9771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채권 소각 관련자 중에서 재기 지원 교육을 받은 사람은 2021년 15명, 2022년 36명, 2023년 47명으로 단 9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희 도의원은 "더구나 경기신보는 앞으로 채권 소각 대상을 기존 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 세금과 관련됐고,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과 형평성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밝히며, "채권 소각자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개

인신용관리, 재무관리, 신용보증제도 바로 알기 등 재기 지원을 돕는 정책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김규창의원, 공공기관 예산 투입은 증가하는데 효과는 미흡

일자리재단 "일자리점검다리사업" 3년간 61억원 투입에도 성과는 미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감사에서 두 기관의 사업중 채권관리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의 부진함을 지적하며 시급히 개선에 대한 주문했다.

경기신보의 관리종결 채권금액이 지난해 480억원에서 709억원으로 증가되고 대위변제, 구상채권회수 금액이 낮아지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지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기도의 재정상황등을 고려할 때 경기신보의 보증사업규모가 어느정도 증감되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

다.

김규창 의원은 일자리재단의 '일자리점검다리사업'이 3년간 예산이 축소됐고 불용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년간 61억원의 사업중 투입된 사업의 결과가 단지 일경형 차원에 머무르고, 일자리 확산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발언하며 사업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제침체에 따라 세수확보가 어려운 경기도 재정상황에서 만들어진 예산으로 일자리재단과 경기신보의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활성화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김범상/기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미래 예측을 고려한 교직원 공동사택 수급 방안 마련 당부

'교직원 공동사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고 미래인구 예측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수급 방안 마련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인구 예측을 고려한 교직원 공동사택 수급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영희 의원은 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연천교육지원청은 넓은 면적에 마을이 산발적으로 형성되어 경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 '교직원 공동사택'의 수요가 많은 데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여 대기가 전체 원거리 교직원 326명 중 98명으로 무려 30%의 교직원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직원 공동사택'의 입차, 신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년 11월에 예정된 입차가 완료되어도, 83명의 대기 수요가 아직 존재하며, '교직원 공동사택'의 신축이 완료되는 2027년이 되어야 현재의 대기 수요가 해소되는데 무려 4년의 세월이 소요된다." 점을 지적

하며, "교직원은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매일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4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연천교육지원청의 단일한 대처이며 특히,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교직원 또한 동반 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에 과연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이 적합한 방법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사들의 요구와 현황을 고려한 '교직원 공동사택'의 확보 방안 및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희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경기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양교육지원청은 시청, 학교, 체육회와 함께 잘 협력해서 마을 주민에게 학교 내 주차장, 체육관을 공유하는 '학교시설 공유제'를 잘 추진하고 있다."고 치하하며, "본 사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청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한다."고 당부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촉구

관광특구 지정은 지역사회 미래 상생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국민의힘, 가평)은 13일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가평군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청정자연 관광지로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평 전체 사업체의 65%가 관광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언급했다.

또한 임 의원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가평군과 춘천시

으로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 과정에서 춘천시의 비협조로 어려움이 있어 가평군만이라도 관광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광현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광특구는 동두천(동두천), 송탄(평택), 고양(고양), 수원화성(수원), 통일동산

(파주)이 지정됐으며, 가평군과 춘천시는 공동 지정 신청을 하여 현재 문체부와 협의 진행 중에 있고, 문체국 관광과에 심의 신청중이나 장기 표류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가 지정되면 경기도의 관광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고 특색 있는 에코 관광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다"며, "경기도지사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범상/기자

식량 작물 품종들의 고향, 수원

쌀 자급 달성한 통일벼, 광고콩·팔달콩 등 수원에서 개발된 품종 다수



사람들이 쌀을 먹지 않아 소비량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시대다.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쌀소비량은 56.7kg이다. 30년 전인 1992년에는 112.9kg이었던 것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 들었다. 조금만 더 거슬러 반세기 전에는 쌀이 모자라 걱정이었다. 법으로 쌀밥을 못 먹게 하고, 쌀막걸리를 만들지도 못하게 했다. 상황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은 수원에서 만들어진 식량 품종들이다. 11월11일 농업인의 날을 즈음해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든 수원 탄생 품종 이야기를 조명해 본다.

◇주곡 자급의 일등 공신 '통일벼'가 탄생한 수원

국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던 시절, 굶주림의 역사를 끊어내고 쌀 품종의 식량 자급을 이뤄낸 벼 품종은 '통일벼'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되는 벼는 자포니카 품종이다. 한국과 중국 북부, 일본 등 온대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자포니카 품종은 둥근 모양에 찰지고 윤기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다. 하지만 병충해 피해가 많고 쓰러짐이 심해 생산량을 늘리기 어려웠다. 이에 우리나라는 1960년대 들어 종자개발사업을 시작, 병충해에 강하고 잘 쓰러지지 않는 품종 육성에 집중한 끝에 통일벼를 만들었다.

통일벼는 당시 수원에 있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과 필리핀에 세워진 국제미작연구소(IRRI)의 공동 연구에서 출발했다. 허문회 교수(1927~2010)가 초청 연구원으로가 생산성 높은 품종 개발을 위해 열대지역 품종인 인디카와 결합하는 3원 교배 방식으로 다수확 품종 IR667을 육성했다. 이 중 우수한 종자를 선발하고 교배하는 것을 되풀이한 끝에 유망한 우수계통 3종이 장려품종으로 선발됐다. '수원213호', '수원214호', '수원213-1호'다.

수원에서 적응을 거쳐 1971년 농가에 보급하기 시작한 통일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재배 면적이 늘었다. 1977년에는 전체 재배 면적의 54%에 재배됐고, 10a당 생산량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통일벼로 생산량이 증대되면서 삶의 모습도 변했다. 쌀 자급률이 113% 올랐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점심은 쌀밥을 먹을 수 없던 '무미일(無米日)'이 1977년 1월 중순부터 사라졌고, 그해 12월부터는 14년 만에 쌀로 막걸리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재배 면적이 확대된 통일벼는 이후 가뭄과 수해, 도열병, 태풍, 냉해 등을 잇달아 겪으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국가적으로 품종 분산정책을 추진했고, 통일벼 개발 이후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자포니카 품종의 고향도 지속적인 성과를 거뒀다. 결국 자연스럽게 점차 재배 면적이 줄어든 통일벼는 1992년 이후 자취를 감췄다.

수원이 고향인 쌀 품종은 통일벼 외에도 다양하다. 2000년대 들어 최고 품질 품종으로 개발된 '고품(수원479호)', '하이아미(수원511호)', '삼광(수원474호)' 등은 물론, 기능성 쌀로 붉은 빛이 도는 '홍진주(수원501호)', 향산화 성분이 함유된 '적진주(수원524호)', 체지방을 줄이는 검정쌀 '흑광벼(수원477호)' 등 다양한 쌀 품종이 수원에서 태어났다.

◇식량 작물 개발과 육종의 중심지 기능

수원은 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물 품종이 탄생한 곳이다. 농촌진흥청이 수원을 떠나기 전까지 개발된 다수의 품종들이 수원의 지명을 활용한 계통명을 갖고 있다. 식량 작물을 연구하던 국립식량과학원이 주도해 개발한 옥수수, 보리, 밀, 콩 등의 주요 품종도 수원이 고향이다.

옥수수는 '수원19호'가 유명하다. KS5(Korea Suwon 5)와 KS6(Korea Suwon 6)을 모본과 부분으로 사용해 만들어 낸 우리나라 최초의 옥수수 교잡종이다. 1977년 가에서 시범 재배를 시작한 뒤 옥수수 수확량이 큰 폭으로 늘면서 대대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후 재래종이 대부분 수원19호로 대체됐다. 1990년대 들어서는 옥수수 육종이 식용과 사료용으로 구분되기 시작하면서 개발돼 주목받기 시작한 '찰옥2호(수원17호)', '일미찰(수원찰45호)' 등 찰옥수수 품종이 나왔다.

맥류 품종에서도 수원이라는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1977년 개발된 '동보리1호(수원183호)'는 추위에 강한 품종이다. 한파가 극심하던 1976년 육성 포장에서 대부분의 보리가 모두 얼어 죽은 가운데 파랑게살이 있던 품종을 육종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새찰보리(수원292호)', '두린찰보리(수원304호)', '서둔찰보리(수원252호)', '진미찰보리(수원332호)', '재안찰보리(수원356호)', '풍산찰보리(수원358호)', '삼광찰(수원394호)', '황금찰(수원403호)' 등의 품종이 수원에서 개발됐다.



밀의 경우 재미있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찰밀 종자를 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일본으로 가 어렵게 품종을 구해 호텔에서 실험을 하고, 여행 가방에 담아 개체를 들여온 육종가가 우리나라 재래종과 교배해 '신미찰(수원292호)'을 개발했다. 이후 '알찬밀(수원257호)', '신미찰1호(수원306호)' 등의 품종이 육성됐다.

한국이 중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콩은 이를 자처할 수원의 지명을 딴 품종이 있다. 1960년대에 수원농업시험장으로 콩 육종 중심지가 옮겨진 후 1969년 신품종 '광고(수원30호)'가 만들어졌다. 광고 품종은 재래종보다 33% 수확량이 많고 잘 탈리지 않아 인기를 끌면서 20여년간 전국에서 재배되는 주력품종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괴저바이러스로 타격을 입은 뒤 새로운 종자를 육성, '황금콩(수원97호)', '신팔달콩(수원144호)', '태광콩(수원145호)', '대원콩(수원181호)' 등 지금도 많이 심는 대표 품종이 만들어졌다.

◇부곡원에서 수원 품종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수원에서 탄생한 품종들이 녹색 혁명을 이끌어 낸 역사는 수원 구 부곡원에서 전사되고 있다. 오는 12월30일까지 열리는 '품종의 탄생 : 수원 쌀 이야기'다. 지난해 말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소가 발간한 구술 충서 '품종의 탄생 : 농학자가 들려주는 수원 품종 이야기'를 토대로 구성된 전시다. 전시는 특히 일제강점기인 1923년부터 종자와 비료 등을 판매하던 회사의 본점이었던 부곡원을 무대로 하고 있어 기존 상설 전시물과도 의미를 연결한다. 다양한 작물의 토종

품종과 부곡원을 중심으로 한 농업 수탈의 역사를 배우는 기회다.

1층에서는 품종을 육종한 농학자들을 중심으로 품종 개발에 대한 뒷이야기가 펼쳐진다. 쌀, 옥수수, 보리, 밀, 콩 등 다양한 품종을 연구하고 개발한 스토리가 패널로 전시돼 있고, 농학자들의 실제 구술 녹음을 영상으로 만들어 실감을 더한다. 2층에는 통일벼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쌀 자급과 관련된 오래된 뉴스 등 영상물이 흥미를 돋는다.

수원 구 부곡원은 이번 전시와 연계한 테마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11월18일 옥수수, 12월9일 보리 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인터넷 예약으로 접수받는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소센터가 발간한 구술 충서 '품종의 탄생'에 나와 있다. 1부는 식량작물 품종 개발과 수원에서 육종된 품종을 설명하고, 2부는 농학자들의 구술이 실렸다. ▲통일형 벼를 개발한 육종 1세대, 정응기 ▲육종 후 수확량과 품질을 가름하는 재배기술 연구자, 최경진 ▲옥수수 육종 변화를 이끌어 간 문현규 ▲옥수수 육종과 품종 분석을 연구한 김선림 ▲옥수수 육종의 현재를 말한다, 백성범 ▲찰보리와 찰밀을 육종한 하용웅 ▲사료용 맥류 육종가, 황종진 ▲태광콩과 대원콩을 육종한 김석동 ▲콩 육종의 흐름과 동향을 말한다, 윤희태 등 10명의 농학자가 구술한 육종 이야기가 담겼다. '농학자가 들려주는 수원 품종 이야기'라는 부제에 걸맞게 육종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김법상/기자

화성시, 찾아가는 권역별 현안 간담회 추진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소통행보 지속

화성시가 13일부터 '찾아가는 권역별 현안 간담회'를 추진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시민 주요 관심사업 설명회'와 7월 '사회단체 간담회' 이후 4개월만의 소통행보로, 5개 권역별 ▲화산동(진안, 병점1, 병점2, 반월, 기배, 화산), ▲우정읍(우정, 팔탄, 장안, 양감, 정남), ▲봉담읍(봉담, 향남), ▲동탄(동탄1~9동), ▲남양읍(남양, 매송, 비봉, 마도, 송산, 서신, 새솔)으로 나눠 진행된다.

간담회는 정명근 화성시장 및 주요 현안 실국소단장이 찾아가 각 읍면동장과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 권역별 특성에 맞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기존 격식을 탈피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된다.

13일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병점역 GTX-C 연장 및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 등 화성시의 큰 현안인 교통분야, 진안신도시 사업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분야를 비롯하여 공원, 도서관과 같은 시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활SOC조성사업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또한, 오는 14일 화성시청(남양, 매송, 비봉, 마도, 송산, 서신, 새솔)에서는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비롯한 서부권 해안 관광 사업 등 안건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우리는 권역별 특색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양하다"며, "모든 지역 빠짐없이 찾아가 주요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에게 전달되어 시민의 의견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양시현/기자



안양시, 정재훈 교수 초청 '인구교육' 실시

최대호 안양시장 "인구구조 변화속 지속가능한 안양 만들기 노력"

안양시는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구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전날 오후 2시 시청 강당에서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초청해 '사라지는 한국 사회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으며, 시민과 공직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강의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감소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효과적인 인구정책 수립 능력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정 교수는 국무총리실 저출생·고령화 특별보좌관을 지낸 인구정책 전문가

로, 현재 교육부 미래교육돌봄위원회 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연에서 정 교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삶의 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강의가 공직자와 시민들이 한국사회의 저출생 현상에 대해 생각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 속 지속 가능한 안양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마련 등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용역예산 포함된 3회 추경안 시의회 통과돼 현 부지 신축 탄력

성남시는 지난 8월 의회에 제출한 3회 추경안(총 1575억 원 규모)이 극심한 진통 속에 2개월여 만에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3회 추경안에는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을 비롯하여 관내 20년 이상 노후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 용역비와 보수공사비 48억 원 등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 원이 포함됐다.

대표적 민생 예산인 가정양육수당

13억 원과 영유아보육료 15억 원 등도 포함돼 지난달 분당구와 중원구에서 지급하지 못했던 가정양육수당은 이달부터 정상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아 지난 10월분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료가 발생한 도서관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요금 또한 이번엔 10억5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돼 정상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분당구보건소 신축 용역 예산 1억1500만 원이 원안 그대로 반영돼

현 보건소 부지 신축 추진이 한결 수월해졌다.

이 밖에도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25억5900만 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26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57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9500만 원, 국공립 및 법인 장애인 보육교사 인건비 2500만 원,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2천200만 원, 아동의료비 지원 2000만 원 등 민생 예산은 모두 반영돼 통과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많이 늦었지만 3회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다행"이라면서 "올해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전과 민생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법상/기자



고양시 동절기 대비 수도시설 일제점검 실시

고양특레시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동절기 상수도 재난대비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2023~2024년 동절기 상수도 종합대책'을 수립해 동파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수도사업소는 수도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배수지 자동 제어 시스템 ▲기계·전기 설비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시설물 운영상황 ▲안전 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

치를 마쳤다.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시는 동파 취약 가정에 수도계량기 보호통과 보온재를 무료로 배부했다. 이어서 시민들이 수도계량기 관리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겨울철 수도관 및 수도계량기 관리 요령 홍보물을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 누수 및 수도계량기 파손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수도 대형업체 및 소

방서 등 관계기관과 긴급복구 협조 체계도 구축했다.

한영기/기자



안산시, 시설직 공무원 대상 자체설계 전문가 교육 실시

안산시 상록·단원구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대부분에서 양구청 시설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설계 전문가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사·용역에 대한 자체설계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양 구청 시설직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계용역 및 공사업무 현장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박준호 강사의 실시설계에 대한 실무교육과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업무에 추진하며 궁금했던 점들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조용대 단원구청장이 '선배공무원이 알려주는 업무처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시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 마인드를 강조하며, 후배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조용대 단원구청장은 "실시설계는 기술직 공무원의 가장 기본업무로, 이

번 교육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선후배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직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학교 현장 방문 통한 시설 개선 행보 이어가

13일 둔전제일초·포곡중·역북초등학교 등 3개 학교 방문해 환경 개선 건의 듣고 관계 부서에 신속 조치 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관내 학교의 교장과 학생, 학부모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학교 방문 요청이 나온 학교들을 찾아 현장 상황을 살피고, 시설과 통학로 개선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 시장은 13일 오전과 오후 처인구 포곡읍 둔전제일초등학교와 포곡중학교, 중앙동의 역북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와 주변시설의 문제를 확인하고, 해법을 모색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먼저 둔전제일초등학교 현장을 찾아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후문 쪽 농로의 안전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지난달 10일 열린 이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후문 쪽 농로가 협소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 시장의 현장 방문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 “농로로 통학하는 곳을

직접 점검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한 이 시장은 이날 현장을 돌아보며 학부모들과 교장의 의견을 들었다.

학부모들은 통학로의 재포장과 인도 설치, 환경 정비 등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현장에 동행한 시 공직자들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학부모들이 요청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주문한 뒤, 통학로 주변 환경부 소유 국유지를 활용해 농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환경부 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포곡중학교로 이동했다. 포곡중학교는 교장·학부모 간담회에서 노후된 체육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곳이다.

이 시장은 지난달 27일 장상운 교육부 차관을 만나 포곡중학교 체육관 보수 등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했다. 장 차관은 지난 9일 내년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통해 리모델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 시장에게 답했다.

이 시장은 이날 학부모들과 교장에게 내년에 체육관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쏟겠다고 말하고, 체육관 시설을 살펴보았다. 이 시장은 또 학교의 석면이 모두 제거됐는지 묻고 나서 1,2층은 석면 제거 작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답을 듣고 “석면을 가능한 빨리 없앨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방안을 찾아보라”고 시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이 시장은 “포곡중 주변 방음벽의 페인트 칠이 오래되어서 그런지 보기에 썩 좋은 모습이 아닌 만큼 방음벽 도색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시장을 만난 포곡중 학부모 A씨는 “교장, 학부모 대표 간담회에 이어 학교 현장까지 직접 찾은 이상일 시장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며 “시장이 바뀐 것 뿐인데 용인의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시 행정을 누가 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즉 인물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교육 발전을 위해 언제나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있으며,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의견을 주시면 참고도 하고 응답도 하겠다”며 “내년에도 학교 측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학교 현장도 많이 찾아다니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엔 중앙동의 역북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역북초등학교는 지난 9월 실내 체육관과 급식 조리 시설을 갖춘 체육관을 신설하는 데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2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곳이다.

이 시장은 지난 7월 역북초등학교 학

생과 학부모들이 시장실을 방문해 체육관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자 그 자리에서 장상운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해 체육관 신설을 위한 교육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장 차관에게 보낸 이 시장은 지난달 27일 장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역북초 체육관 신설을 강조했고, 특별교부금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도 들었다.

역북초 학부모들은 염원하던 체육관 신설을 확정된 것에 대해 “이상일 시장이 열심히 나서준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하고, 학교 후문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큰 도로의 인도와 맞닿아 있는 학교 후문에 폐쇄회로(CC) TV와 도로변 단속카메라 설치, 후문 주변 도로와 인도 경계에 설치된 철제 바에 대한 노란색 페인팅, 하굣길 아이들이 보행자나 자전거, 킥보드와 충돌하지 않도록 후문 입구 경광등 설치, 인근 건널목을 노란색 표시, 일부 파손된 보도블록 정비 등을 요청한 것이다.

이 시장은 함께 학교를 찾은 처인구청 관계자들에게 “학생들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님들 말씀이 모두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전부 개선하는 조치를 속히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다음 달 8일에도 장상운 교육부 차관을 만나는데 용인의 교육 발전에 필요한 내용을 또 정리해서 전달하고 지원을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올해 확정된 학교 시설 개선 사업 진행 과정을 수시로 확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겠다”며 “내년에도 학생과 학부모, 교장선생님 등과의 미팅을 수시로 갖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김범상/기자

이천시, 공직자 여성친화도시 교육 실시

이천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여성친화도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백미록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의 강의로 이루어졌다. 국내외 분야별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여성친화도시의 관점을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법과 직원들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그 외 성인지 통계를 활용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권옥선 여성보육과장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들의 성인지 향상과 전 부서의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 시간이 각자의 업무에서 여성 친화적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천시는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인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

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힘쓰고 있으며, 2020년 지정됐다.

김범상/기자



광명시, 국토부 미래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 선정



광명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미래모빌리티 도시형에 선정돼 모빌리티 특화도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미래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은 도시계획단계부터 교통분야에 ICT와 혁신기술이 융복합된 기존과 전혀 다른 양상의 모빌리티 서비스인 자율주행, UAM 등 미래형 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광명·시흥 3기신도시를 ‘초연결 모빌리티 허브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으로 미래 모빌리티 중심의 교통 서비스 및 인프라 계획안을 제출해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광명·시흥시가 사업 추진을 공동 주관하며,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모빌리티 전문기업인 현대자동차, 도시계획 전문기업인 제일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시는 이번 미래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특화 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 내용은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도로 인프라, 다양한 유형의 모빌리티 수단을 수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 등 공간 인프라 구성과 UAM, 로보택시, 로보셔플, 퍼스널모빌리티, 배송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등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계획은 도시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 시도가 될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 ‘디지털트윈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디지털트윈 기반 UAM 버티포트 및 항로 시뮬레이션 구축’을 추진 중이며, 지난 11월 9일에는 KTX광명역과 인천공항을 잇는 UAM 공항서를 시범노선 구축을 위해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선도 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용민/기자

이 시장은 “다음 달 8일에도 장상운 교육부 차관을 만나는데 용인의 교육 발전에 필요한 내용을 또 정리해서 전달하고 지원을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올해 확정된 학교 시설 개선 사업 진행 과정을 수시로 확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겠다”며 “내년에도 학생과 학부모, 교장선생님 등과의 미팅을 수시로 갖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김범상/기자

의정부시 송산3동 주민자치회, 깨끗한 송산3동 만들기 정화활동 시작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는 송산3동 주민자치회가 11월 11일 민락천

일대에서 ‘깨끗한 송산3동 만들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깨끗한 송산3동 만들기는 청결하고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진행하는 주민 주도형 마을 정화활동이다. 총 3회 진행하며 15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다.

이번 활동에는 주민자치위원들과 송산3동 자치민원과장 및 직원,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민락2지구와 민락천 일대 약 8km 구간을 걸으며 각종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벤치를 닦는 등 환경 정비를 진행했다.

김석수 회장은 “정화활동에 참여해

주민 주민자치센터 수강생과 송산3동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추진될 2차, 3차 깨끗한 송산3동 만들기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류윤미 자치민원과장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동네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려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화활동과 환경점검으로 살기 좋은 송산3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상주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For more success with SANGJU

더 큰 성공을 위한 선택

순천시, 산림기능사 교육 개강, 열공 분위기 뜨거워!

임업인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임업인 육

순천시는 임업인 자긍심 고취와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한 산림기능사 자격 취득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지난 6일 개강했다.

이번 산림기능사 교육은 야간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임업인들의 호응이 뜨거워 선착순으로 입학후계자등 30명 모집이 이뤄지고 있으며 11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주간 진행하게 된다.

교육내용은 산림기능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이론 수업으로 임업인이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교육생으로부터 식재, 산림병해충, 산림작업 기계 사용법 등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산림기능사는 산림 및 자연환경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격증으로, 교육생들은 이론교육 수강 후 산림기능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처음 진행되는 산림기능사 교육을 통해 전문임업인을 육성하고, 나아가 산림관리 전문가를 양성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림, 육림, 목재수확 등을 통해 임가 소득 증대 연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승준/기자



진도군, 불령장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진도군 체육회 선정...3년간 운영

진도군이 지난 10일 진도군청 상강실에서 진도군체육회와 진도군 불령장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진도군 불령장 운영 위·수탁 업무협약식은 불령장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도군체육회가 선정됐다.

진도군 불령장 건립사업은 지역적으로 열악한 군민의 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불령장은 진도공설운동장 일원에 국비 11억원과 군비 24억원 등 총 35억원을 투입하고 10레인을 설치, 943.41㎡ 규모로 건립됐다.

군은 오는 12월 13일까지는 시범운영기간을 통해 군민들에게 무료 개방하고 이후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불령장 개관을 통해 군민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체육활동

을 적극 장려하겠다"며 "진도군의 다양한 체육시설의 적극적인 홍보로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공설운동장 일대는 축구장과 실내체육관, 근력훈련장, 실내 육상준비장 등의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조성해 인기있는 동계 전지훈련장으로도 손꼽히고 있다.

김영진/기자



완도군, 책 읽는 지자체·보길 윤선도 작은 도서관 '대상' 동시 수상 접경사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 개최,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힘쓴 점 높이 평가

완도군이 지난 9일 열린 '제8회 책 읽는 대한민국' 시상식에서 '책 읽는 지자체' 부문 대상과 보길도의 윤선도 작은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 부문에서 대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국립독서문화진흥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후원하는 '제8회 2023년 책 읽는 대한민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한 지자체에 상을 수여하고 있다.

군은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 개최와 더불어 도서 지역의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독서 동아리 활동과 희망 도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공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독서 문화 향

유 기회 제공, 독서 인구 저변 확대에 힘썼다.

특히 작은 도서관 부문 수상은 처음으로 도서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책을 자유롭게 만나 즐길 수 있는 친화적 문화 공간을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지영 문화예술과장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서관이 독서 친화적 공간으로 거듭나고 주민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2014년 신지 햇살 작은 도서관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통해 '1읍면 1도서관'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양영율/기자



전남도, 담양 전통한과, 크리스마스 선물용 미국 코스트코행

전남도,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지원사업 성과...1만 세트 상차

담양 소재 전통한과 생산기업인 산들해(주)의 한과 선물세트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전라남도는 산들해(주)의 전통한과 1만 세트 상차식이 지난 13일 진행됐다고 밝혔다. 해당 전통한과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미국 서부의 문화와 금융 중심지인 샌프란시스코 코스트코 4개 매장에서 시험 판매된다.

담양의 한과 전문 기업인 산들해(주)가 생산하고 더웰푸드(대표 김유나)가 유통 판매하는 한과세트는 기름에 튀기는 방식이 아닌 불꽃바 방식으로 오븐에 구운 유과로 특허출원을 받은 제품이다. 기름에 튀기지 않아 어린이용 건강 간식으로 활용도가 높고, 유통 중 기름의 산패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한과 세트는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지원사업에 따른 성과다. 전남 식품기업의 글로벌 성장세가 주목된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 7월 지방정부로는 세계 최초로 아마존 쇼핑물에 지방자치단체 브랜드관을 개설한 이후 총 43개 기업 99개 제품이 입점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17% 성장해 약 174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아마존 전남관 입점 기업 중 시장성과 경쟁력이 있는 제품에 대해 현



지 맞춤형 제품 개발과 디자인 개발, 마케팅을 집중 지원하는 '아마존 스타폼 북 육성사업'을 도입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8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 결과 산들해(주) 한과선물세트가 네 번째 성과다.

국내 우수한 식품 대기업도 미국의 코스트코에 입점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에서 아마존 전남관 지원사업은 지방의 작은 식품기업이 글로벌 식품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전남도는 이번 샌프란시스코 4개 매장에서 실시하는 테스트 판매 결과에 따라 미국 전역 코스트코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현지 시식·판촉 행사 등을 통해 제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식품시장에 입점한 제품이 현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수출기업은 물론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해 현지 바이어와의 협상 지원, 현지 판촉 행사 등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전남 중소기업이 글로벌 식품기업과 당당히 경쟁하면서 해외 주류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한국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 음식을 대표하는남도 음식의 우수성이 부각되는 현재의 트렌드를 활용해, 도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식품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함평군, 함평읍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조성 '첫 삽' 떠

전남 함평군은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착공식을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 모정환 도의원, 윤영랑 함평군의회회장을 비롯한 군의원,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장, 기관사회단체장 및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함평읍 각각 일원에 조성되는 어울림 커뮤니티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서며 2층에는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건강·예술 동아리실, 멀티미디어실 등이 조성돼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읍 소재지는 물론 더 나아가 군민 모두에게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배후마을(남부, 북부) 소거점 조성, 주민 역량강화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영진/기자



남원시, 도·농 상생교류를 통한 WIN-WIN 이뤄!

남원시↔새애넌교회와 도농상생 상호협약식 가져

남원시는 11월 13일 용인시 새애넌교회가 방문하여 양측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약식과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남원시와 새애넌교회는 글로벌 아트도시 남원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관광분야의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더 나아가 도농 상생을 위한 생활인구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약속을 협약서에 담았다.

특히 금번 상호협약은 남원시 이백면이 고향인 새애넌교회 소강석 담임목사와 남원시의 소중한 인원이 계기가 되어 성사됐는데, 평소 고향 남원에 대한 애착심이 깊고 문화 예술적 소양이 뛰어나 글로벌 아트도시 남원을 만드는데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고자 하는 뜻이 반영됐다.

또한, 새애넌교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원시 고향사랑기부금 및 농산물 구입에 총 1억원을 들여 남원시의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8천만

원을 기탁하고, 2천만원 상당의 남원에서 생산된 쌀을 구입하여 용인지역 어려운 가정엔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고향인 남원시를 방문한 새애넌교회 소강석 담임목사는 "나의 영원한 고향 남원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상호협약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다방면의 교류를 통해 남원이 글로벌 아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일조하고 싶다"며 "서로가 관계를 맺는 것보다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 되는게 더 어려운 만큼 긴밀한 관계를 펼쳐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최형식 남원시장은 "소강석 목사님의 끊임없는 고향 남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글로벌 아트도시 남원 만들기를 위한 상호협약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리며, 더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WIN-WIN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남출/기자



'소통과 화합' 나주시, 공무원 청렴 불령대회 첫 개최

전라남도 나주시와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실천하는 청렴 다짐과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나주시청 공무원 청렴 불령대회'를 지난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6월 나주시와 공무원노조 간 체결한 청렴 협약서 체결에 따른 공직사회 청렴 문화 확산과 직원간 화합을 기치로 처음 열렸다.

시청 부서 24개팀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빛가람동 소재 불령장에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선의의 경쟁이 펼쳐졌다.

대회 결과 교통행정과 1팀과 2팀이 우승, 준우승을 각각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3위는 상하수도과, 4위는 건강증진과였으며 이외 8강 진출 팀들까지 노조에서 마련한 소정의 시상금을 받았다.

이진광 노조지부장은 "내부 청렴도 향상을 다짐하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업무로 지쳐있던 직원들이 스포츠를 통해 오랜만에 서로 소통하는 뜻깊은 행사였다"면서 "일상 충진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청렴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청렴 불령대회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해 직원 간 화합을 도모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회 시상식에 참석한 윤병태 나주시장은 "소속 직원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함께 웃고 화합하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다"며 "노조와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조직 내부 청렴도 향상과 시민들이 행복한 시정을 구현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시와 공무원노조는 조직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협약 이후 '청렴 결의대회', '추석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 '청렴 교육' 등을 추진해왔다.

또 관내 상가 업체 16개소와 제휴 협약을 맺어 소속 직원들의 이용 편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김영민/기자



전북도, JB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고창군 명소 탐방



전북도는 해외 인지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구성·운영 중인 'JB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가 12일 고창군 탐방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탐방은 한국관광공사가 운곡람사르습지를 알리기 위해 개최한 전국행사인 '운곡 람사르습지 생태탐방

레이크스'가 열리는 날에 연계해 실시했다.

전북도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는 세계적 습지공원인 운곡람사르 습지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홍보함과 함께 단풍이 절정에 이른 선운사와 고창 대표관광지인 고창읍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탐방을 진행했다.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연계한 고창 지역 문화탐방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는 대회 정규 코스인 12km 구간과 22km 구간 외에 '서포터즈'들을 위한 별도 체험형 완주 코스를 마련해 레이스에 긴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유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운곡습지와 고창군을 처음 방문한 유학생들이 많아 관심도도 높았다. 특히 문화관광해설사의 '이야기'가 갖는 설명이 탐방의 재미를 더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탐방을 함께한 몽골 유학생은 "22km를 걸어야 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별도 코스가 마련되어 쉽게 운곡습지를 둘러볼 수 있었고, 고창의 다양한 곳을 방문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전라북도의 색다른 명소를 알게 돼 기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10월 임실N치즈축제, 이날 고창군 탐방에 이어 12월에는 전라북도의 겨울을 느낄 수 있도록

무주군 방문 계획을 마련 중이며, 이에 더해 도내 공공기관 및 주요기업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활동 결과를 분석하고 서포터즈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포터즈 활동이 도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유학생 서포터즈가 전북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느낀 기억들이야말로 전북을 해외에 오롯이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관광 명소뿐 아니라 전북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포터즈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서포터즈 활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뿐 아니라 가장 한국다운 전북의 매력을 전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따뜻한 금융클리닉 전주센터)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단체 티셔츠를 제공했다.

이남출/기자

구례군과 중국 지주시 상호결연 20주년 맞아

구례군, 상호결연 20주년 중국 지주시 방문 우호협력 강화 다짐

전남 구례군은 우호 교류 방문단을 구성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상호결연 도시인 중국 안휘성 지주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구례군과 지주시의 상호결연 20주년을 맞아 지주시의 초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구례군에서는 김순호 군수를 비롯해 유시문 군의회 의장 등 16명의 대표단이 지주시를 방문했다.

지주시 평천호 일원에서 개최된 2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두 도시의 지난 20년간의 교류 성과를 영상으로 돌아보고, 계속해서 상호 우호를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기념품을 교환하고 우정 나무를 심는 시간을 가졌다.

지주시 주호동 시장은 기념식에서 지주시와 구례군이 20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한중 우호의 항로를 따라 산업 협력을 강조하고 과학기술 혁신, 현대농업,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여 상호이익과 상생

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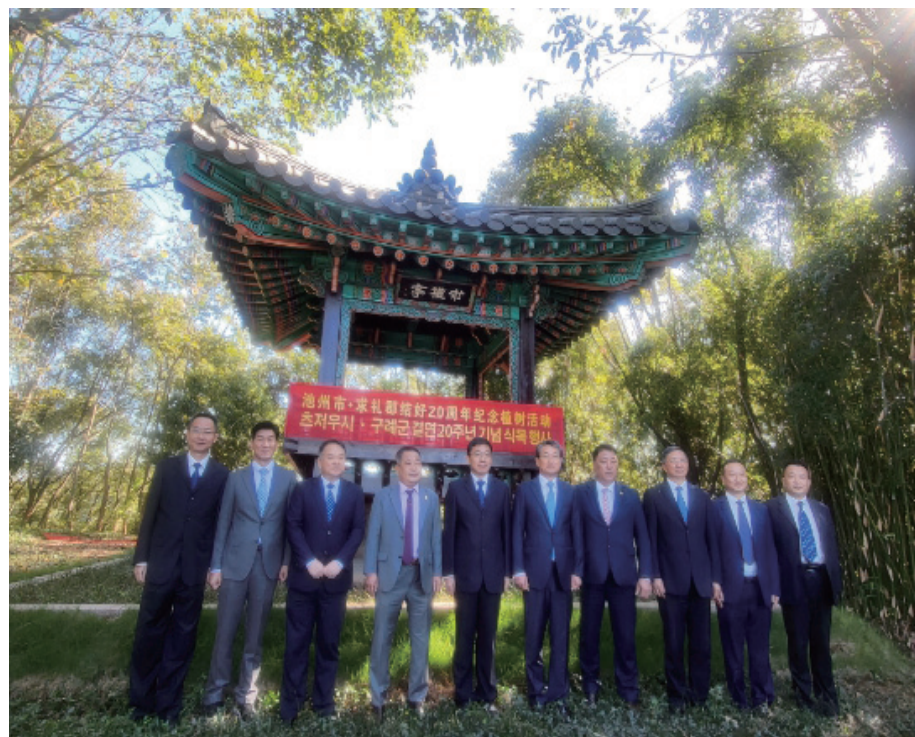
이에 김순호 군수는 양 도시가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이에 두 도시는 청소년 교류 등 그동안 안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교류의 재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구례군 대표단은 방문기간 동안 한중 국제협력 산업단지, 세계 3대 홍차인 기문홍차 제조시설, 불교문화 중심의 구화산 풍경구를 시찰하고 양 도시의 발전을 위한 교류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구례군과 지주시는 2003년 11월 상호결연을 체결한 이후 문화, 관광,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상징물 건립(구례정, 지주정), 공무원 교환 근무, 청소년 교류 등으로 양 도시 발전과 한중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김성현/기자



2023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성과공유회 성황리 개최

목포시 사회적경제 기업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성과공유회 추진

목포시가 지난 10일, 전남사회적기업 협회 사회적협동조합 목포시지부 주관으로 목포시문화해설사 해관1897에서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목포시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함께 모여 올해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우석대 ESG국제정책연구소 부소장이자 교양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지용승 교수가 사회적경제와 ESG(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기업 지배구조(Governance)의 합성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성과 발표는 사단법인 상생나무의 '사회서비스 연계 지원사업', 목포시 협동조합회의의 '공감마켓' 운영 등 5

개 기업이 참여했다. 특히, 마을공동체로 활발하게 활동한 부흥동 마을공동체에서 마을공동체 '부흥으로 오리' 운영에 대해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우리시 사회적경제기업의 한 해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사회적경제 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동현 전남사회적기업협회 사회적협동조합 목포시지부 대표는 "목포시에서 어떤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서로 소통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강진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국도비 12억 6천만 원 확보

(주)더본코리아(백종원 대표)와의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 동력 가동

강진군은 전라남도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한 전통시장 관련 공모사업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 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강진읍시장 시설 개·보수사업과 병영시장의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선정됐으며, 군은 이 2건의 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국·도비 12억 6천만 원과 군비 8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이다.

강진읍시장 시설 개·보수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화장실, 휴게공간, 소화시설 등 시설 개선과 쾌적한 공간조성으로 이용객 및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주)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와 함께하는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 실현의 추진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진읍시장과 오감통 먹거리장터부터 시작해 시장주변 상가로 확대하고 이후 강진읍 상권 전체를 활성화하는 3단계로 진행되는 지역살리기 프로젝트는 강진읍 시장을 시작으로 다른 관



광지까지 관광객이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늘어난 관광객만큼 일자리도 늘어나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병영시장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원으로 병영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강진 불금불파 행사와 연계해

실패하는 지역소생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처음 선보인 '강진 불금불파 행사'는 병영의 오랜 전통 먹거리인 병영 돼지불고기와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결한 새로운 관광모델로 지난 5월 26일 개장 이후, 13,0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통해 인기 불리기와 동일한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

추윤호/기자

보성군, 16, 17일 보성문화원서 남도무형유산 전시·공연 열려

무형유산의 가치를 탐구하고 활용을 모색하다

보성군은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보성문화원에서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2023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남도무형유산 초청 전시·공연'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2023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사업'은 보성군의 무형유산의 가치를 탐구하고 이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성문화원에서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다.

'무형의 품격 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남도무형유산 보유자들

대거 초청했다.

'남도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이틀간 열리는 전시회에는 참빛장 고흥주, 나주반장 김춘식, 웅기장 이학수, 낙죽장 이형진, 염색장 정관채 보유자의 작품 등 총 10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또한, '남도의 멋과 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공연은 16일 김은숙 가야금병창, 강대송 남도잡가, 이희춘 진도북놀이, 황재중 마동매구, 17일 박춘맹 판소리, 선영숙 가야금산조, 박방금 판소리, 김병천 진도북놀이, 김동연 무도

농악 등 품격 있는 무대로 전통예술의 진면목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16일 오후 2시에는 'K-Culture'로서 지역무형유산의 가치'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기조 강연은 함한희 전북대 명예교수, 주제 발표에는 흥태한 전북대 무형유산정보연구소 연구교수, 종합토론에는 정희천 전북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박정식 목포대 교수, 박종오 남도민속학회장 등이 참여한다.

보성군 담당자는 "보성인의 삶에 너

최원영/기자

신안군에서 펼쳐진 분재의 장, '제8회 대한민국 분재대전' 성공적으로 완료



신안군은 신안군이 주최하고 (사)한국분재협회가 주관한 제8회 대한민국 분재대전이 지난 12일 성공적으로 완

료됐다고 밝혔다.

1004점 분재정원은 세계 최초의 국립 분재정원으로 지난 11월 2일부터

11일간 진행된 분재대전에 1만여 명의 분재 동호인과 관람객이 이번 전시를 찾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신안군이 보유한 명품 분재 200여 점과 (사)한국분재협회 심사를 통과한 분재 작품 200여 점이 전시되어 분재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대전은 분재 동호인과 분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분재 예술의 진수를 선보이는 기회였으며, 분재인의 노력과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두어, 한국 분재문화의 발전과 분재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교통이 불편한 신안군까지 찾아주시는 관람객의 성원에 감사하다."라고 감사하며 "분재정원을 더욱 정성 들여 가꾸어 분재인의 요람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1004점 분재정원에서는 분재 문화 확산을 위해 1004점 분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8일부터 25일간 4천만 송이 매기동백꽃 향연을 펼치는 '2023 섬 겨울꽃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김영진/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역활성화 해답은 규제혁신”

추경호 부총리에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규제 완화 건의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3일 서울 정 부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 정부장관을 만나 지난주 8일 발표된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에 담긴 경북지역 규제현안에 대한 지원 대책*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7월 지정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인 5산단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고시되어 '반도체 기업이 입주하지 못하는 반도체 특화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구미 5산단이 위치한 해평면(과곡리, 문량리 제외) 일원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고시되어 국가 5산단 내 축구장 1800여 개의 넓이(여의도 면적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3.46km²가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

황이다.

또 이철우 도지사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재산의 매각결정도 건의했다.

이는 2019년 구미 4산단에 있던 아사히피디글라스가 사업을 철수하며 공터로 남아있는 1만 9400평의 부지에 대한 기재부의 매각결정을 서둘러 달라라는 내용이다.

경북도는 아사히피디글라스가 사용하던 부지를 국내기업에 공급하기 위해 2020년 4월에 외국인투자지역을 해제했으며, 도와 구미시는 용도폐지와 매각 의결까지 마무리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매각결정만 하면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끝으로 최근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비수도권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되면서 20년 전 LG필립스 LCD가 구미 대신 수도권인 파주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한 사례와 지역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비수도권 규제 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규제혁신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과제”라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아는 지방과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대구시, EU 데이터 생태계 전문가 초청 ‘국제 데이터 세미나’ 개최

11.21.(화) 13:15 ~ 17:05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1층 태양홀에서 개최

대구광역시시는 모빌리티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독일 DLR(독일 항공우주센터)-한국자동차연구원 이 공동 주최하고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제 데이터 세미나’를 오는 21일(화)에 개최한다.

유럽은 유럽의 각국 정부, 기업, 단체 300여 개가 참여해 만든 Gaia-X(EU 데이터 생태계)를 아시아로 확장을 확대하려 노력 중이며, 이번 세미나는 Gaia-X/Catena-X 구축·운영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독일 DLR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해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하며 대구시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1부) ‘연결된 미래’ Gaia-X와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주제 전문가 강연(①Gaia-X4 future mobility Data Space Project(Frank Koester-DLR) ② Semantic Communication : 함부르크 사례(Maximilian Staebler-DLR) ③오도모티브 데이터 플랫폼(KADaP) : 국내 자동차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전략(한국자동차연구원) ④ 국내 자율주행 Open SW&DATA 프로젝트 사례(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및 ‘대구시 모빌리티 데이터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열린 토론, ▲(2부) ‘이어지는 협력’ 국제 데이터 파

트너십 구축 주제의 전문가 발표(①대구시 데이터 생태계 조성 전략(市 빅데이터과) ②Gaia-X/Catena-X/Mobility 국제협력(Robin Tab-DLR) ③모빌리티 데이터시장 R&D 프로젝트 국제협력(대경ICT산업협회) 및 ‘한국과 독일 간 모빌리티 데이터 생태계 조성 협력’을 위한 열린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열린 토론에서는 Gaia-X에 참여하고 독일과 기술협력을 맺으며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국내 데이터 기업들도 참여해 글로벌 데이터 거래 진출 및 국제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이번 세미나에 관심 있는 데이터 산업자 및 관련 업계 종사자는 11월 20일까지 접수사이트를 통해 사전 등록하면 참석 가능하다.

최윤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행사는 대구 기업들이 EU 데이터 프로젝트 경험을 공유해서 글로벌 데이터 거래 시장에 진출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EU 데이터 생태계 전문가와 유익한 토론으로 대구시 모빌리티 데이터 산업 발전과 국제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들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 기념 음악회' 개최

11.15. 19:00 부산예술회관에서 개최

부산시는 오는 15일 저녁 7시 부산 예술회관에서 '부산시-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1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글로벌도시재단(대표이사 황기식)이 주관하는 이번 음악회는 부산시-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1주년을 기념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알마티시는 카자흐스탄 내 최대 도시로, 1929년부터 1997년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였다. 고려인 동포가 약 11만 명 거주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국가 중 한국의 인기가 가장 큰 지역이기도 하다.

지난해 9월 14일 한-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 기념 및 '2022 부산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의 알마티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했으며, 올해 8월 24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양 도시 간 합동 기념공연을 개최하는 등 협정 체결 이후 양 도시는 문화·경제 분야에서 교류를 더욱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날 음악회에는 알마티시를 대표하는 카자흐스탄 '사즈겐 사지(Sazgen-

Sazy)' 민속 실내악단과 부산시를 대표하는 시립국악관현악단이 함께 출연해 양 도시의 우정과 화합의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창단 이래 부산을 처음 찾는 '사즈겐 사지(Sazgen-Sazy)' 공연단은 카자흐 전통 현악기인 '동브라', '세르테르'와 아코디언, 드럼 연주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가곡과 민요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곡을 선보이며, 이번만 아니라 부산 시민을 위해 부산 찬가도 연주할 예정이다.

양 도시의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1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행사만큼 공연 피날레는 부산시-알마티시 공연단의 '아리랑' 합동공연으로 장식할 예정이다.

공연 참가 신청은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유라시아협력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다.

주요장 부산시 2030엑스포추진본부장은 “우리는 지난해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한 이후 더욱 폭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알마티시와 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라며, “이번 음악회가 양 도시 간 이어온 교류·협력의 결실을 보여주는

우정과 화합의 무대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청송군, 촘촘한 산불예방 대응체계 구축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운영

청송군은 철저한 산불예방을 위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군은 촘촘한 산불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61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선발했으며, 이 기간 동안 철두철미한 산불 대응 총력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건조한 기후가 나날이 많아져 대형 산불이 잦아 발생함에 따라 산불의 조기 발견 및 초동진화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청송군은 전년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원보다 인원을 증원했으며, 산불감시원 인원수도 증원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1명, 산불감시원 68명을 관내 곳곳에 배치해 촘촘한 산불 예방책을 마련했다.

특히 군은 관내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를 11월 1일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관내 주요 등산로 및 관광지 산불위험 현수막 설치, 청송군 관내 전체 산림 66,487ha 중 10,718ha 입산통제 및 화기를 소지 금지구역 지정, 등산로 20km 구간 폐쇄(산불조심기간동안) 등 철저한 산불예방 대응체계를 펼치고 있다.

또한 청송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경우 신속한 산불 진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을 활용한 산불진화 특별 훈련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훈련 종료 후 2주에 1회씩 진화모의 훈련도 진행해 비상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은 전체 면적의 84%가 천혜의 산림자원인 만큼 산불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산불조심기간 동안 민과 관이 하나 되어 산불 제로(ZERO)를 달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어려운 이웃에 쌀·김치 전달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경북 지역본부는 13일 영양군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백미와 김장김치 100박스(7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도창 영양군수, 김종필 경북지역본부장, NH농협 서중식

영양군지부장, 영양농협 양봉철 조합장, 남영양농협 박명술 조합장이 참석했고, 전달받은 물품(백미 500kg, 김장김치 1,000kg)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영양군 관내 취약·소외계층 10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는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홍보 및 복지문화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해 준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진군, 2023년 직급별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교육 실시

변화, 열정 그리고 섬김으로 함께하는 혁신

울진군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울진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직급별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급별 역할 인식을 제고하고 직무 전문성 향상을 통해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전체 직원 800여 명 중 500여 명이 수료해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보였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 5급 이상 공무원 대상 '간부 리더십 과정' ▲ 6급 대상 '핵심 리더 양성' ▲ 7급 대상 '정책 기획자 양성' ▲ 8·9급 공무원 대상 '실무 역량 강화' ▲ 신규 임용 과정 등 총 5개 과정으로 3일에 걸쳐 직급별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특히 군수와 직원들이 울진군의 비전

과 정책 방향에 대해 상호소통하고 직급별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군수님 특강도 함께 진행되어 일체된 모습으로 울진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최근 신규 임용된 한 직원은 "교육을 통해 지향해야 할 역할에 대해 정립할 수 있었다"며 "대민서비스 및 섬김행정의 태도를 마련할 수 있었고, 직급이 변화하듯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만족을 표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직급별 맞춤형 교육으로 직급별 역할을 재정립하여 탄탄하고 유기적인 조직으로 군정 목표를 달성하고, 개인 역량을 증대시켜 직무 전문성을 향상하고 군정발전 및 섬김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원전중단 시대 대체 양수발전소... 영양·봉화가 최적지"

13일, 산업부장관 만나 봉화·영양 양수발전소 유치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3일 방문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영양군과 봉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적극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1.75GW(2035년 준공) 규모의 신규 양수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의 영양군과 봉화군을 비롯한 전국 6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로 12월 말경 최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영양군과 봉화군에서는 80%가 넘는 산지 지형으로 300미터 이상의 고도차를 이용한 낙차 효과 극대화를 최대의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서로 인접한 양수발전소가 송전선로를 공동으로 이용하면 송전 비용이 1,565억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양수발전소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100% 찬성하는 등 주민 수용성도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영양·봉화군은 올해 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 지역 자원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으며 범군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회 유치동의안 의결을 거쳐 범군민 결의 대회를 개최하는 등 양수발전소 유치에 전 군민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양수발전소는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시간대에 값싼 전력으로 3분 이내 발전할 수 있는 비상 전원이자,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라며, "경주 지진, 울

진 산물 등 원전 가동이 중단됐을 때 이를 즉각 가동해 전력 계통의 안전성을 유지한 경험과 원전 12기가 생산한 전기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력 공급의 길목에 위치한 봉화와 영양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양수발전소 유치는 소멸위험에 처한 군 단위 지역이 1곳당 최소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9월 18일 1.75GW(2035년 준공) 규모의 양수발전소 사업공고를 낸 상태다.

그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독점적으로 건설 및 운영해 왔으나 관련 규정 개정으로 여러 발전사가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의 유치전도 치열한 상황이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엑스코 고향사랑박람회서 경주사랑기부제 홍보 '앞장'

특색 있는 답례품 시식회 열어 기부참여 이끌어 내

경주시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 고향사랑박람회'에 참가해 경주사랑 기부제 홍보에 앞장섰다.

TBC가 주최·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내 고향을 향한 아름다운 기부'라는 주제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답례품 홍보를 위해 도내 13곳 지자체와 답례품 관련 업체가 참가했다.

경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소개와 함께 다양하고 특색 있는 답례품을 전시해 방문객들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특히 △단석가 찰보리빵 △김성일 찰보리카스테라 △감산다향 차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 답례품으로 시식회를 열고 홍보물을 배부해 기부참여를 이끌어 냈다.

또 박람회 기간 동안 시·군별로 펼쳐

진 고향사랑기부 릴레이 행사에는 이형주 희성산업(주) 대표가 경주시에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기부릴레이를 이어갔다.

경주 출신으로 경산시 진량읍에서 자동차 관련 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이형주 희성산업(주) 대표는 "내 고향 경주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기로 결심했다"며 "앞으로도 주변을 돌아보고 받은 사랑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기부를 통해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 공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안동시, 이정현 지방시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초청특강 개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공유로 지역주도 분권형 균형발전 위한 소통의 장



안동시는 13일 시청 대동관 영남읍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을 초청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번 특강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과 철학을 공유하고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 역량을 향상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권기창 시장을 비롯한 부서장과 직원, 산·학·연 관련 내빈과 주민단체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현 부위원장은 수도권 일극 현상이 국가적 위기 수준에 이르렀으며 현 상황을 짚었다.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감감한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계획권 실현 ▶담대한 교육개혁 ▶창조적 혁신성장 ▶지역 주도 특화발전 등 5대 전략 추진이 중요하

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전략을 이끌 정부 핵심 4대 정책으로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도입 ▶지방거점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K-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등을 소개했다.

특강 중 이정현 부위원장은 안동시는 문화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바이오·백신 산업에서도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서 안동만의 비교우위 자원을 적극 활용한 자치계획을 잘 준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문화특구 지정'이라는 기회를 꼭 잡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시는 이번 특강을 맞이해 지방시대 성공 염원을 담아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지역소멸 대응 및 미

레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바이오·헬스 기회발전특구, K-문화특구, Hemp 글로벌 혁신특구, 교육발전 특구 안동 지정 등 4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강이 끝난 후 안동시 미래를 이끌어갈 MZ세대 공무원과 함께 '지방시대 해법, 안동이 정답'이라는 글자판과 '4대 특구 지정' 팸말을 들고 지역소멸 극복 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시는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해 북부권과 남부권을 잇는 연결고리의 지리적 이점으로 지방시대 성공 실현의 최적지"라며 "이번 특강을 백분 활용하여 현 정부 정책에 부합한 맞춤형 지역 역할 재정립을 통해 지역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모범 도시로 도약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시작

산물벼 매입 1,820톤 완료, 11. 14일부터 건조벼 1,424톤 매입

경북 영덕군이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에 따라 올해 수확 벼 중 약 3,244톤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한다. 매입물량은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물량을 포함해 약 3,244톤(81,102포/40kg)으로, 그 중 산물벼 1,819톤(45,481포/40kg)을 매입 완료하였으며, 14일부터 건조벼 1,425톤(35,621포/40kg)을 매입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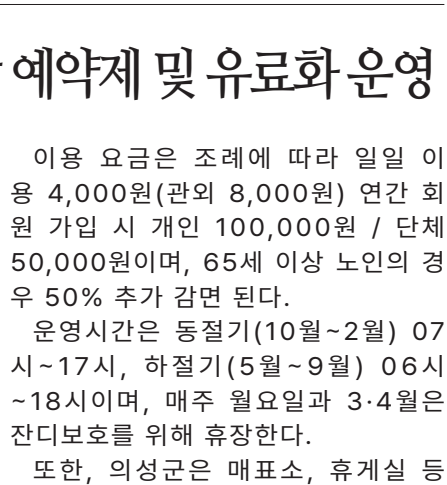
올해 매입 품종은 일품, 삼광으로 검정결과 수매 대상 품종 외 다른 품종을 출하하거나 혼입해 출하할 경우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공비축미 출하 농업인의 수확기 자금상환을 위해 수매 직후 중간 정산금(3만원)을 지급하며,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수확기 동안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확정된 후 연말에 최종 정산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수매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 안전을 위해 공공비축미곡(건조벼) 톤백(800kg) 포장재 비용과 산물벼 건조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소형 포대 출하 농가를 위해 농협을 통해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올해도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농업인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무엇보다도 안전한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해 농가 및 매입관계자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의성군, 비안파크골프장 예약제 및 유료화 운영

의성군은 군에서 직영 운영 중인 비안파크골프장의 시범 운영 기간을 끝내고 오는 11월 15일부터 예약제 및 유료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체 36홀로 조성된 비안파크골프장은 관내 동호회 회원들 뿐만 아니라 관외 동호인 사이에서도 적절한 코스 난이도와 우수한 잔디 관리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의성군 관내 주주자는 연회원 가입 또는 일일 입장권 구입 후 예약 없이 현장 당일 방문 선착순 입장으로 이용 가능하며, 관외 주민은 10일 전부터 전화예약(054-861-1110) 후 일일권 구입 후 이용 가능하다. 관외 주민은 △1부 16명(08시~12시), △2부 12명(13시~17시)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이용 요금은 조례에 따라 일일 이용 4,000원(관외 8,000원) 연간 회원 가입 시 개인 100,000원 / 단체 50,000원이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50% 추가 감면 된다.

운영시간은 동절기(10월~2월) 07시~17시, 하절기(5월~9월) 06시~18시이며, 매주 월요일과 3·4월은 잔디보호를 위해 휴장한다.

또한, 의성군은 매표소,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파크골프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봉화군, 우수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봉화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9일과 10일 경남 함천 일대에서 우수 자원봉사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우수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평소 지역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관계성 증진과 유대 강화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센터 이사장의 재난대비봉사와 나눔에 대한 특강이 펼쳐졌으며 지역문화탐방도 진행됐다.

김병남 이사장은 "봉화군에서 늘 묵묵히 최선을 다해 봉사하시는 봉사자분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무척이나 즐거웠고, 센터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항상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글로벌대학 30'2곳 3개 대학 전국 최다 선정 쾌거!

이철우 지사, "경북이 주도하는 대학 혁신모델 선도·확산에 앞장"

경북도는 13일 교육부 주관 '글로벌 대학 30'에 안동대-경북도립대, 포함 공과대 총 2곳 3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대학 30'은 경북도 소재 지방대가 담당한 혁신을 통해 세계 우수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대학'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산업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나아가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 2곳 3개 대학은 지난 6월 전국 108개 대학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 15개 대학이 예비 지정됐고, 이후 세부 실행계획서 작성과 강도 높은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또한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학,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 51명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TF팀과 2~3회 실무회의를 통한 최종 실행계획서 작성은 물론 마지막 대면평가 준비까지 원팀으로 함께 이뤄낸 성과라 더욱 뜻깊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2곳 3개 대학의 혁신안은 글로벌 대학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대대적인 혁신안을 담고 있어 최종 선정될 자격이 있음을 충분히 입증했다.

경북도의 2곳 3개 대학 혁신안을 들여다보면, 먼저 안동대-경북도립대는 전국 최초 국공립대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통합대학으로 입학정원 대폭 감축과 통합대학 내에 공공부총장제도 도입과 대학과 지자체, 혁신공공기관을 연결하는 전담기관인 K-ER협업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전통문화 기반 K-인문학 중심 융합 인재육성을 위해 인문학 교원 대폭 충원과 K-인문선도센터 설립을 통해 세계적으로 K-인문 콘텐츠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국가적 전략산업인 세계적 백신 기술의 허브로 만들고 그린바이오, 헬스 등 사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환경과 기술 역량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글로벌 대학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포항공과대는 이차전지, 수소, 원자력, 바이오, G-반도체 등 경북지역 전략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지역기업 혁신성장에 집중투자하여 지역 번영을 위한 로컬화에 기여할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100% 무학과, 환동해 글로벌 연합 아카데미 조성, 국내 인재 글로벌 역량 제고 등 3無 경계 수요자 중심 교육 혁신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과 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경북 스타트업 아카데미, 스케일업 그라운드, 스타트업 빌리지 등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글로벌 창업 퍼시픽 밸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발판이 되는 첨단 신산업 중심의 지역 유니콘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포항공과대는 이러한 글로벌 대학 혁신 성공을 구현하기 위해 대학 법인 자체에서 2,000억원이라는 과

감한 재정투자금도 확보했다.

경북도는 이번에 선정된 글로벌대학의 우수사례를 도내 타 대학들과 공유해 차기 선정에 더 많은 대학이 '글로벌대학 30'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RISE 추진체계에 경북형 글로벌 대학 등 대학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하고 분석해 고도화 전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글로벌대학에 최종 선정된 2곳 3개 대학에는 지방비를 추가 투자해 성공적인 대학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이번에 선정된 글로벌대학을 시작으로 경북 주도 지방대학 혁신모델을 선도·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젊어지는 인구구조에 맞춘 탄력받은 군정 추진

인구구성 변화에 맞춘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 만족도 높여

예천군이 젊어지고, 이에 따라 군정이 달라지고 있다.

군은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전형적인 농촌에서 경북도청 이전으로 '평균연령 33세, 40세 이하 약 80%'인 호명신도시를 품으면서 인구구성의 변화로 새로운 가치를 담은 변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변화'와 '혁신', '도전'이라는 중심 가치를 담고 과감한 변화를 추구하면서 '경북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호명면은 2022년 12월부터 인구 2만이 넘어섰고, 내년 2월 1일 읍으로 승격을 앞두고 있다. 그간 부족한 기반 시설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꾸준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

361억 원을 투입한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10월 개관해 돌봄 시설과 가족센터, 건강강진센터, 행복복지센터 출장소,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신도시 패밀리파크는 9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물놀이장, 농구장, 풋살장을 지난여름에 개장하고, 글램핑장, 캠핑장, 바비큐장 등은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평천 주변 '미세먼지 차단숲'까지 조성되면 가족 단위 놀이와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원도심 활성화 추진

예천을 원도심도 다양한 사업으로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 7월 문을 연 '아시아사랑안심케어센터'는 4층 규모로 장난감도서관과 체험놀이시설, 함께활동센터가 들어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 공동육아의 거점이 되고 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속도를 내 출산과 육아 친화적인 예천을 완성해 갈 계획이다.

전선지중화와 간판개선 사업으로 도시 외관을 깔끔하게 정비하고, 도심 곳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편리하게 주변 상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심사지오층석탑과 폐철도부지 예누

리길 조성, 남산공원 정비로 군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힐링 공간으로 관광자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군은 지보면 매창리 일대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을 조성해 청년 농부 유입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간다. 200억 원 규모로 '곤충산업 거점 단지'를 조성해 미래 먹거리 곤충산업을 키우고, 200억 원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과 100억 원 규모의 수직농장을 조성해 첨단농업으로 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쌀, 참기름, 부각 등 다양한 지역농산물을 해외시장으로 수출 물꼬를 텃으며, 한우특화센터를 건립해 한우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특히, 보문면 신월리 일원에 제3농공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 지역 경기 활성화의 주역, 양공·육상 대회 유치

'양공육상의 도시' 공격적 스포츠마케팅으로 유동 인구를 유치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복안이다.

진호국제양궁장을 비롯한 육상실내 돌출연장을 갖추고 매년 각종 양공·육상 대회 개최는 물론 전지훈련지로 각광 받고 있다. 올해 6월 '아시아U20 육상경기선수권대회' 성공 개최의 전력으로 내년에는 '2024 현대양궁월드컵 2차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254억을 투입해 건립하는 대한육상교육훈련센터는 10월 첫 삽을 떴고, 양궁훈련센터가 건립된다면 차별화된 스포츠 시설 인프라로 명실상부 양공과 육상의 도시 입지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인구구조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고, 원도심과 신도시의 상생 발전을 목표로 군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군민 중심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역동적 군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부산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강화

부산시는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5명(체납액 9억 1천2백만 원)의 가택을 수색해 5만 원권 신권과 무기명 선불카드, 백화점 상품권 등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최근에 전국 최초로 압류한 무기명 선불카드와 상품권 등에 대한 환가시스템을 구축해 현금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압류·징수한 2천만 원 중 5백만 원 상당은 환가시스템을 통해 현금 외 품목을 현금화한 것이다.

시는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세(시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연중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정리 기간을 설정해 차량 번호판 영치·급여 압류·공과금 등 체납자들에게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 예금·보험금·가상자산·전환사채 등 금융자산 압류와 추심, 공공기록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있으며,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반을 편성해 체납처분을 위한 허위 매대·가등기를 이용한 사해행위자에 대해 가처분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등 탈루 은닉재산 및 사해행위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본납 유도 및 영치 번호판 일시반환,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해 상생하는 체납세 징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체납세 징수와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자동응답시스템

(ARS),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납부 등 온라인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한 카카오톡 체납종합안내문 발송시스템도 시행하고 있다.

김호경 부산시 재정관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계속하고 내년부터는 시·구·군 합동 가택수색을 시행해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을 확대·강화할 것"이라며,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세상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LX 청송영양지사 지역사랑 기부활동 실시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영양분관 방문해 성금기탁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청송영양지사는 11월 13일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영양분관을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했다.

LX 청송영양지사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사업을 수행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내는 등 지속해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어 지역사회 상생 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번 기부는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선제적인 기부활동으로 '따뜻한 겨울나기'방한용품 지원이나 기타 장애인 복

지 서비스를 통해 영양군 내 장애인 및 소외계층에게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정순 청송영양지사장은 "우리 주변의 이웃은 우리 힘으로 돕는 것이 진정한 지역사회복지의 의미라고 생각해 직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은영 영양분관장은 소중한 성금을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할 것을 약속했

으며, 오도창 영양군수는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LX청송영양 지사의 따뜻한 나눔 활동을 통해 온정이 느껴지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는 것 같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영양분관은 다양한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사업, 평생교육지원사업,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역량 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며 지역 주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팻감 지원

영주시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크리스마스나 겨울을 위해 '사랑의 팻감'을 지원한다.

시는 생활이 어려운 홀몸어르신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난방용 연료로 제공하는 '2023년 사랑의 팻감 나누어 주기' 행사를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에 나눠주는 '사랑의 팻감'은 지난 3월부터 약 8개월간 '공공산림기공

기 사업'을 통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과 숲가꾸기 자원조사단이 산림부산물을 수집해 마련했다.

이번 사랑의 팻감 나누어주기 행사는 관내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세대에 총 90톤 정도의 팻감을 지원한다.

금두섭 산림복지과장은 "정(情)을 나누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이웃에게 난방비 절감



에 도움을 주고자 겨울철 사랑의 팻감 나누어 주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숲가꾸기 부산물을 재활용해 이웃사

랑을 실천하고, 산물 인화물질 제거로 산물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한울본부, 'ESG 병뚜껑 업사이클링 장난감 기부 이벤트' 시행

한울에너지팜에서 병뚜껑 기부하고 미니 화분과 씨앗 세트 받아주세요!
한울본부, "앞으로도 한울에너지팜을 통해 친환경 의식을 고취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오는 20일부터 한울본부 ESG 병뚜껑 업사이클링 장난감 기부 이벤트를 시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플라스틱 병뚜껑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실천을 장려하고자 마련되었다.

참여 희망자는 한울에너지팜 내 이벤트 존에서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제품 전시를 관람하고 병뚜껑을 기부하면 된다. 병뚜껑 20개를 기부하면 자투리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미니 화분과 씨앗 세트를 받을 수 있다.

한울본부는 병뚜껑 기부 목표치인 1,000개가 달성되면 이벤트를 종료하고, 장난감 만들기 키트와 함께 병뚜껑을 울진군 관내 아동 복지 시설에 기부할 예정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울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한울본부 인스타그램(@hi_hanul)을 참고하거나 한울본부 홍보부(T.054-785-2941)로 문의하면 된다.

한울본부는 앞으로도 한울에너지팜을 통해 친환경 의식을 고취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영등포구, 수능 전후 청소년 유해 환경 집중 단속, 캠페인 실시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 순찰, 귀가 지도, 위기 청소년 등 연계·지원

영등포구가 수능 전후로 학교 주변과 유해업소 밀집 지역 등에 대해 청소년 유해 환경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구는 11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영등포경찰서, 영등포구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과 협력해 ▲신·변종 룸카페, 호프, 카페, 숙박업 등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위반 행위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행위 ▲술, 담배 등 판매 행위 ▲불건전 전단지 등 배포 행위 ▲모텔 등 청소년 이성 혼숙 묵인, 방조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한 심야 시간에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을 귀가 지도하고 음주, 흡연, 폭력, 가출 등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에도 앞장선다.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은 지역 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원한다.

아울러 11월 16일, 수능 당일에도 구는 영등포경찰서, 영등포구 청소년 유

해환경감시단, 영등포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영등포역 일대에서 거리 캠페인을 펼친다.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과 인식 제고,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영등포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평소 청소년 유해 환경 주변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며, 수능 날까지 학교별로 순회하며 수험생 응원 이벤트로 청소년 보호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들은 긴장이 풀리고 해방감에 젖어 자칫 음주나 흡연 등 일탈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향신/기자



청각 약자를 돕는 히어링 루프, 성동구 스마트쉼터 47곳에 설치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내 시범 운영을 거쳐 전체 스마트쉼터 53곳 중 47곳에 설치 완료

서울 성동구는 청각 약자를 위한 히어링 루프(Hearing Loop)를 스마트쉼터 47곳에 설치했다.

히어링 루프(Hearing Loop)란 청각 장애인이나 보청기·인공와우 착용 난청인, 고령자가 주변 소음에 구애받지 않고 버스 안내 음성을 명료하게 청취할 수 있도록 돕는 무선 송출 장치를 말한다.

히어링 루프 시스템은 대중교통, 극장, 교회, 학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설치되며 청각 약자들이 주변 소음 없이 명확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돕는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히어링 루프 설치가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와 같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정책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장애인법(ADA)에 따라 일정 크기 이상의 시설에는 이와 같은 청각 보조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가 주관한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에 공모하여 최종 선정되어 청각 약자들이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히어링

루프존 설치를 추진해왔다. 지난 5월에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내 히어링 루프를 시범 설치한 데 이어 이번에 전체 스마트쉼터 53곳 중 47곳에 설치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하는 것이다.

히어링 루프가 설치된 스마트쉼터에는 청각 약자들이 해당 장비가 있는 곳임을 알 수 있게 안내문을 부착했고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히어링 루프 소개와 사용법을 설명하는 동영상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장치 전면에는 청각장애인 화가의 미술 작품을 디자인으로 활용해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성동구는 히어링 루프 시스템 설치사업이 청각 약자들의 일상생활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적 포용정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원우 성동구청장은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스마트포용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라며 "더 많은 주민들이 스마트 기술로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화재 노(NO)! 안전사고 제로(ZERO)! 관악클린센터 더욱 안전해 진다

관악클린센터 내 화재예방 설비(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등)를 강화 완료



자원순환시설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다. 자원순환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과 적치된 쓰레기 속의 배터리, 부탄가스, 라이터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자원순환시설 내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큰불로 번질 수 있어 그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관악구가 관악클린센터 내 재활용선별장과 폐기물 적환장의 화재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한 시설운영에

총력을 기울인다.

구는 최근 작업자와 주민들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재활용선별장에 스프링클러, 소방펌프, 물탱크, 화재감지기(불꽃감지기, 연기감지기 등)를 구축했다. 폐기물 적환장에는 노후화된 화재감지

기와 선로를 교체하고 비상 유도등을 설치해 화재예방을 위한 시스템 강화를 완료했다.

이로써 관악클린센터 안에서 불꽃, 화재 연기 등이 감지되면 스프링클러가 물을 뿌려 화재의 초기 진화가 가능해졌다. 또한,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악클린센터 근무자와 소방서에 신속히 알리는 연락체계를 구축, 화재 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는 관악클린센터의 24시간 경비, 순찰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CCTV(폐쇄회로)와 화재예방 설비를 통합감시체계로 구축해 주야간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는 재활용선별장 내에 안내방송 장비를 설치, 안전한 작업지휘와 긴급 안내방송을 통해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제로(ZERO)'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 관계자는 "관악클린센터의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집중하고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힘쓰겠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경쟁의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동해안 청정해역! 안전한 우리 수산물!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강원도, '2023 강원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 9만 3,493명 참가 성료

전년 대비 인증자 수 45.7% ↑, MZ세대 인증률 35.9% ↑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대표이사 최성현)은 지난 3월부터 10월 까지 진행한 '강원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 운영을 통해 총 93,493명이 도내 명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 참가자 수가 9만 명을 돌파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전년대비 45.7% 증가한 수치이며, 20좌 완등자 또한 1,011명으로 전년대비 7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원형 산악관광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유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30대 방문객은 21,024명으로 전년대비 35.9% 증가했고, 40~50대 방문객은 55,139명으로 전년대비 50.4% 증가했다. 한편, 강원 20대 명산 완등자에게는 완등 기념 배지와 강원 특산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대 명산은 도내 각 산의 특성을 반영해 5대 약산, 5대 육산, 10대 숲

은 명산으로 구성됐으며, 전체 참가자 중 41%가 약산을, 27.8%가 육산을, 31.2%가 숲은 명산을 방문했다.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산은 설악산, 치악산, 팔봉산 순으로 모두 약산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접경지역 5개 시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의 산에는 15,290명이 방문하여 전년대비 31.8% 증가, 폐광지역 4개 시군(태백, 삼척, 영월, 정선)의 산에는 19,632명이 방문하여 전년대비 56%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강원관광재단 최성현 대표이사는 "올해 강원 20대 명산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악관광 콘텐츠 발굴과 홍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국내 산악관광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원형/기자



충남도, 안전 분야 자율감시체계 전문성 높인다

제4차 충남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성과 공유·발전 방안 논의



충남도는 13일 도청에서 '제4차 충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일상 속 안전관리 대응력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확대해 자율감시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와 정한울 도 차치 안전실장, 시군 안전감찰 부서장, 충남 개발공사, 관계기관,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협의회는 유공자 표창, 영상 상영, 올해 성과 발표, 내년 계획 보고, 질의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안전감찰 분야에 공헌한 유공자 4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으며, 올해 안전감찰 추진 실적

과 전통시장·수영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 등 실행과제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올해 주요 안전감찰 지적사항은 △방음터널(벽) 안전관리 소홀 △사회복지시설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부적절 △건설현장 안전·품질관리 소홀 △재난상황관리 미흡 △출동차량 안전관리 소홀 등이며, 82건을 처분 조치했다.

또 △방음터널 등 방음시설의 자체 성능기준 마련 △노인요양시설 침실설비 기준 개정 △기술지도계약 체결제대상 건설공사 추가 등 안전감찰 결과 도출된 제도의 미비점 11건을 중앙부처에 개선 사항으로 건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로 협의회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며,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검토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안전감찰 종합계획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성과와 미흡한 점, 개선 방안 등을 지속 모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고질적인 안전 위험 요인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 공공기관 감찰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안전감시 시스템과 제도를 더욱 혁신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아산시 '이제는 지방시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특강 개최

박경귀 시장 '기회발전특구' 지정 건의 및 '경찰병원 예산 면제' 요청

아산시는 13일 오후 시청 시민홀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특강을 개최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을 총괄한다.

특히,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세제·재정 혜택 및 규제 특례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심의·의결하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굵직한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지방자치와 국가 균형발전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이날 우 위원장은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우 위원장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화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게 하겠다"며 지방시대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이탈의 삼중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은 지역특화 전략으로 청년층 인구가 지속해 유입되고 있다"며 "이처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에는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특강 전 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4월 대통령께서 아산 방문 시 약속하셨듯,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선회될기 위해 아산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박 시장은 또 "국민이 어디서나 균등한 혜택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으로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충남 아산을 위해 경찰병원 아산분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지원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 시청 방문에 앞서 송악면에 있는 마을 공간 '해유'를 방문했다.

이곳은 농촌마을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 특화를 통해 젊은 인구를 다수 끌어들이며 '2023년도 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김원호/기자



충북도, 글로벌대학30 "충북대+한국교통대" 최종 선정

충청권 유일 글로벌대학30 최종 선정으로, 대학별 국비 1천억원 지원

충북도는 13일,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되어, 대학별 5년간 국비 1천억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글로벌대학30 사업은 대학을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모델로 키우기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6월 15개 대학을 예비 선정했고, 10월 대면·서면평가를 통해 10개 대학만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다.

최종 선정 평가요소로 대학실행계획 70점, 지자체 지원 및 투자계획 30점이 반영되어, 충북도의 행·재정적 지원도 중요했다.

이에 도에서는 대학 혁신과제, 지자체 투자 규모, 인재양성·연구개발·산학협력 지원계획, 지역산업 육성과 대

학연계 등을 15회 이상 대학과 함께 논의했고, 양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 지·산·학·연 18개 기관 협약식 개최 등을 지원했으며, 글로벌대학30 최종 선정을 위해 예비지정 후, 4개월의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양 대학은 '통합을 통한 혁신 극대화, 지역과 함께 세계로!'라는 비전으로 혁신선도인재 1,000명 양성, 거점대 취업률 1위, 졸업생 지역 정주율 40%, QS세계대학 평가 100위권대 진입을 목표로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의 글로벌대학30 최종 선정은 통합모델 4개 대학 중, 규모가 제일 큰 종합대학 간의 통합이라는 점, 충북은 RISE 시범지역으로 고등교육 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지

원하는 점, 충북지역의 지·산·학·연 18개 기관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대학을 지원하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는 내년 11월까지 1년간 통합신청서를 작성하여 '27년 3월 종합대학을 출범시킬 계획이고, 충북도는 올해 최종선정 경험을 살려, 내년도 글로벌대학 사업에도 도내 대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우리 도내 대학의 글로벌대학 선정은 대학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지자체 주도의 RISE사업과 더불어 대학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해 충북도와 글로벌대학 간에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북지역을 아우르는 거점

대학으로서 도내 고등교육을 뒷받침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은 학생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해, 궁극적으로는 충북도의 청년 인구증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정화/기자



사계절 축제의 도시 원주, 펀시티(Fun City) 조성 박차!

개최 시기 분산, 시너지 효과가 큰 축제는 병행 추진

원주시가 사계절 축제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축제 체질 개선에 나선다.

도심 곳곳에 볼거리, 즐길거리를 강화하여 노점 도시 이미지에서 탈피, 펀시티(Fun City)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현재 30여 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69%가 5월과 9월, 10월에 집중돼 있다.

이에 개최 시기 분산 등을 통해 불필요한 혼잡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여 '사계절 축제의 도시 원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올 겨울부터 ▲아이스링크장 운영, ▲법천사지 지공공사탑 연날리기 한 마당을 열어 동계스포츠 체험 기회와 함께 겨울철 즐길거리를 제공해 온 가족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봄에는 ▲용수굴 꽃양귀비축제, ▲장미축제, ▲산악자전거 숲-포스트페스티벌, ▲원주 맨발걷기축제, ▲치악산 트레일러닝대회 등 꽃을 소재로 하는 축제와 액티비티한 축제를 열어 움츠렸던 겨울 추위에서 벗어나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고 나선 상춘객을 불러 모은다.

여름에는 ▲원주문화의거리 치맥축제, ▲원주 하이볼 축제 ▲치악산 복숭아축제, ▲물놀이장 운영 등 도심 속 물놀이장에서 가족과 함께 무더위를 날려 버릴 시원하고 즐거운 축제뿐 아니라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야간형 축제도 준비했다.

가을에는 ▲원주 국제걷기대회, ▲원주 한지문화제, ▲원주 만두축제, ▲원주 단풍카니발, ▲동화마을수목원 가을축제 등 원주대표 음식, 춤과 흥의 도시 원주를 소재로 한 축제와 트레킹 도시에 걸맞게 걸으면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축제들이 열린다.

기업종합박람회와 삼토펠페스티벌, 원

주만두축제와 강원감영 국화전시회 등 시너지 효과가 큰 축제는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고 약점을 보완해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9월 개최된 기업종합박람회에서는 지역 상품 팔아주기 등 다양한 방문객이 삼토펠페스티벌로 유입되면서 농특산물 판매로 이어져 기업과 농가 상생하는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또한, 만두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이 주변 전통시장을 방문해 먹거리와 쇼핑을 즐기고, 강원감영에서 오감만족 국화꽃의 향연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감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상호 윈윈(win-win)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 밖에도 축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외지 상인들의 불법 상행위 및 바가지요금을 근절하여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한편, 교통·주차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해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축제의 현장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체질 개선 과정을 통해 원주를 일 년 내내 즐거움이 가득한 재미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라며, "우리 시 축제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거듭나 체면제 서민경제를 살리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태백시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주역! 석탄광부 사진전' 16일 석촌호수에서 개최



태백시와 (사)석탄산업전사추모및성역화추진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석촌호수(서울 송파구)에서 태백 탄광 역사가 담긴 석탄 광부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2024년 6월 폐광이 예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역사인 광부들의 발자취를 되짚으며 석탄 광부들을 기리기 위해 기획됐다.

(사)석탄산업전사추모및성역화추진위원회는 이번 사진전을 통해 근대 산업화 시기에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시발점이 된 석탄산업과 탄광의 역사를 기념하고, 탄광을 모르는 현 세대가 석탄 광부의 희노애락을 공감할 수 있는 소

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표 광산도시 태백의 도시브랜드 마케팅, 고향사랑기부제, 태백 관광 및 스포츠 훈련장 등 태백시 홍보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이었던 광부들을 기리고 추억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바라고, 또한 이번 행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태백시를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석탄 광부와 광도(광산도시) 태백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유상근/기자

전남도, 대설·한파 대비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취약계층 보호와 구민 안전 최우선...영등포구,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

인명피해 제로 대응계획 점검·상호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협의

한파·제설·안전·보건환경·민생안정 5개 분야 중점 추진, 내년 3월까지

전라남도는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남도-유관기관 간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협업 간담회를 지난 13일 개최했다.

간담회엔 전남도 13개 협업부서와 전남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0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도 인명 안전을 위한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재해 발생 시 기관별 역할과 상호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폭설 시 고속도로 제설활동, 한국전력공사는 안정적 전력공급체계 구축, 전남경찰청

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교통관리 계획수립 등 유관기관별 겨울철 재난대비 계획에 대해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협의했다.

전남도는 올해 대설·한파에 대비해 상황관리 총력대응, 도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설대책 추진,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안전대책 수립,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등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전남도와 시군은 제설장비와 자재를 확보하고, 제설전진기지, 자재창고를 포함한 제설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한파·대설 대비 점검을 했다.

또 신속한 제설을 위한 제설장비, 자

재 구입 및 홀로 사는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온열의자 설치, 방한용품 구입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12억 7천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로당, 마을회관, 행정복지센터 등 7천446개소를 한파 쉼터로 지정, 15일부터 전면 개방·운영한다.

송광민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자연재난은 피해발생 후 복구보다 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도민들께서는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적극 동참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 안부 묻기 등 이웃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영등포구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제설, 안전, 보건, 민생을 중점으로 하는 '2023/2024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2024 겨울철 종합대책'은 올 겨울 많은 눈과 큰 기온 변화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겨울철 안전사고 대비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 약자와 함께하는 맞춤형 한파대책
구는 한파가 더 차갑게 다가오는 저소득층, 어르신,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별 한파대책'을 마련했다.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 취약계층 300가구에 전기매트, 장갑 등 난방용품을 지원한다. 작년보다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500여 명의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돌본다. 쪽방 주민과 노숙인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한파쉼터와 온기텐트, 온열의자 운영을 통해 더욱 두텁고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한파상황관리 전담팀(T/F), 한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한다.

◇ 신속하고 선제적인 제설 대책
폭설에 대비한 빈틈없는 제설 대응에도 앞장선다. 급작스러운 폭설에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소포장 제설제와 살포기 등 각종 제설장비를 준비했다. 또한 경사가 있거나 제설이 어려운 구간에는 도로열선을 설치해 구민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 안전 사각지대까지 촘촘하게! 밀착 안전점검
다중이용시설, 복지시설, 전통시장, 체육시설 등 구민 생활 밀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 화재, 정전, 균열, 동파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공사장, 공원, 가스공급 시설의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 감염병 예방, 먹거리 안전도 꼼꼼히

독감, 모기, 코로나 등 감염병 예방과 겨울철 먹거리 안전 등 구민 건강을 위한 대책도 면밀하게 챙겨 나간다. 먼저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발맞춰 코로나19 감시 및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동절기 모기 유충의 사전 방제에도 나선다. 구민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황사 예·경보 제도 실시한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농수산물 위생점검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성탄절, 설날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조리·판매업소, 집단급식소, 배달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도 실시한다.

◇ 구민 민생안정 대책
이 밖에도 지속적으로 가격 동향을 파악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을 통해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에도 힘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올해 큰 한파가 예보된 가운데, 구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과 구민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둔 종합대책을 시행한다"라며 "더욱 촘촘해진 종합대책으로 약자와의 동행에도 주력하고, 소외되는 구민 없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환신/기자

서초구, 'QR코드'·'신분증 달기'로 부동산 불법 중개 원천 차단!

영양 들여다보기

영양군 YEONGANG-GUN www.yyg.go.kr

구,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스티커 부착...영업 중인 관내 1,760곳의 개인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배부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서초구가 최근 무등록 중개행위, 전세 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구민 보호를 위한 확인 장치를 이중으로 마련했다.

서울 서초구는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1,760곳에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 배부'를 지난 13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중개의뢰인이 중개사무소를 방문 전 출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적정 등록업체인지 확인 후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함이다.

QR코드에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에 연계돼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사진, 중개업 종사자 등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사항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구는 지난해 9월부터 추진 중인 '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도 병행 중이다. 신분증은 가로 5.5cm 세로

8.5cm 규격으로, 앞면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상호가, 뒷면에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번호 등이 적혀있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외부 QR코드로 먼저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내부에서는 성명과 얼굴이 부착된 신분증을 통해 공인중개사 여부를 이중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해당 사업들을 통해 공인중개사 사칭,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계약자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업을 위한 구청을 방문 시 QR코드 스티커와 신분증 제작·배포를 적극 안내하고, 폐업의 경우에는 모두 반납하도록 했다.

향후에는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QR코드 스티커 부착과 신분증 패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는 '찾아가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로 지난 10월 말까지 약 447여건의 상담을 운영 중이며,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교육 동영상 배포'도 하고 있다.

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서초구 부동산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불법 중개행위를 막기 위한 이중 확인 장치와 더불어 신뢰받는 부동산거래 문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흥수/기자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조회

Home > 부동산중개업정보 >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조회

대표자사진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11650-2023-00001	서초구 공인중개사사무소	이모범
	중개업자구분	주소	전화번호
	공인중개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02-2155-6902
	상태구분	등록일	보통보유유무
	영업중	2014년 06월 05일	유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 중개사무소 상태가 영업중이 아닌경우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직위	중개업자구분	성명
일반	중개보조원	이바른

대표자 영업이력 정보 등

중개업자구분	상호명	소재지	등록일	등록번호	상태	행정처분 정보
개업공인중개사	오늘 행복한 부동산중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08-11		영업중	-
개업공인중개사	내일 행복한 부동산중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03-21		폐업	2015-10-12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출산, 선비위와 남이로,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촉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립재민호보호수관, 반딧불이전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본재수석야생화전시관



경북교육청,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으로 학생의 미래 역량 제고

경북을 넘어 대구, 전남에 이어 해외와 공동 수업으로 세계와 함께 배우다



경북교육청은 소규모학교의 제한적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산어촌 학교의 학생 수 감소와 소규모화에 따른 교육과정 정상 운영과 양질의 학습 경험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은 교육환경의 변화와 학교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올해 총 85교(급)에 총 4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공동 수업 학교 △도.농 상생 학교(급) △초-중 연계 학교 △원격 화상 수업 학교급으로 4가지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형별로 △공동 수업 학교는 '인근 지역 소규모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15교와 '온라인 국제 교육과정 운영' 4교를 선정해 운영하고 △도.농 상생 학교(급)는 '도시와 농산어촌 초등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2교와 '경북-대구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6학급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초-중 연계 학교 8교 △원격 화상 수업 학교급은 '도내 학급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40학급, '경북-전남 간 원격 화상 수업 운영' 10학급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공동 수업 학교는 지난 11년간 운영 해 온 농산어촌 공동 교육과정 사업을 기

반으로 소규모학교 간 교육과정 협력 운영과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있다.

중심학교와 협력 학교 간 공동 수업 연구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 프로젝트 학습 운영과 체험활동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정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온라인 국제 교육과정'은 원격 화상 시스템을 통해 경북과 해외(뉴질랜드) 교실을 연결하여 같은 주제로 공동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업으로 4개 학급을 운영한다.

뉴질랜드 학교와의 공동 수업 운영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교수,학습 역량과 상호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의 공동체 역량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도.농 상생 학교(급)는 도시와 농산어촌 학교(급) 간 지역 특색을 살린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교류 프로그램 운영, 공동 수업으로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운영모형을 개발하게 된다.

올해는 경북 내의 도시-농산어촌 간의 상생 학교를 넘어 대구와 상생하는 경북-대구 간 공동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경북-대구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학급은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에 맞는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공동 수업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의미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게 된다.

△초-중 연계 학교는 초-중학교 간 공

동 수업과 체험활동 교육과정 연계 운영을 통해 학교급 간의 학습 환경 격차를 줄이고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하고 있다.

초-중학교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예술과 체육교과 중심으로 공동 수업을 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과 연계한 체험활동과 동아리 활동도 함께 운영한다.

△원격 화상 수업 학급은 지역적 한계 극복을 위해 화상 수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업 공유를 통해 협력하고 소통함으로써 학습 내실화를 꾀하고자 운영한다.

올해는 도내 학급 간 원격 화상 수업 학급뿐 아니라 전라남도 학급과의 원격 화상 수업도 확대 운영한다. 경북-전남 간 원격 화상 수업은 웹카메라를 통해 두 지역의 교실을 연결하여 같은 주제로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학습 과제를 해결하며 영호남 지역 문화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다.

1대1로 매칭된 경북-전남 학급은 매칭 교사 간 수업 계획 협의, 원격 화상 수업 운영(실시간 쌍방향 수업), 수업 운영 결과 공유 등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공동 교육과정 운영은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획기적으로 바꿈으로써 작은 학교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해 작지만 강한 학교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경북을 넘어 대구, 전남 그리고 해외까지 공동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 표준으로 도약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교수,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중심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될 수 있는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함께 학교' 캠페인 계속해 이어가

경북교육청은 지난 9일 안동송현초등학교에서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등굣길 선생님 깜짝 응원을 시작으로 공교육 신뢰 회복과 교원 사직 진작을 위한 '함께 학교' 캠페인을 계속해 이어가고 있다.

14일(화)에는 김태형 부교육감이 의성중학교에서 등굣길 선생님 깜짝 응원에 동참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3주체 간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함께 학교' 캠페인을 추진했다.

학교 학생회와 학부모회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는 '함께 학교' 캠페인은 이달 말까지 도내 교육지원청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박명호 의성교육장과 의성교육지원청 관계자들도 의성중학교 학생회



와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들과 함께 등굣길에 만난 선생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응원했다.

김태형 부교육감은 "임종식 교육감을 시작으로 2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까지 동참하고 있는 이번 캠페인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받고 학교 구성원이 상호존중 하는 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교육청, 학교급 전환기 학생 진로연계교육 강화

부산시교육청이 중·고등학교 학교급 전환기 학생들의 학교급 간 연계, 진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진로 연계 교육 자료 '징검다리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매년 중학교 학생들에게 상급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방법, 효과적인 학습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학업 부담을 줄여주고 자신감 있는 학교생활을 지원해 왔다.

올해 보급하는 '징검다리 프로그램'은 지난 7월 중·고 진로 교사,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교사 등 15명의 개발·검토 위원들이 개발해 나섰으며, 학생용 워크북과 영상자료, 교사용 자료로 구성했다.

학생용 워크북은 총 3권 39차시로 제작했다. 1권 '단단한 디딤돌'은 중학교 생활 정리하기, 고등학교 생활 적응하기, 시

간 관리 등 내용을 실었다. 2권 '고교학점제 맛보기'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적용하여 학업 설계하기, 학교생활기록부 맛보기 등의 내용을 담고 고등학교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3권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는 공부 습관 다지기, 5개 교과 자기주도학습법 이해 및 적용하기 등 내용을 수록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고, 교과별 내용 및 학습 방법 등의 학교급 간 연계를 통해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부산교육청은 책자뿐만 아니라 영상 콘텐츠,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참고 자료를 보급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중점 사항인 진로 연계 교육을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성환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이

번 자료 보급은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초·중·3 학생들의 불안감과 부담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영양교육지원청, 너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2023학년도 영양학생상담자원봉사자 집단상담 공개보고회 개최

영양교육지원청 학생상담자원봉사자연합회는 11월 13일 수비중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영양지역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집단상담 공개보고회를 개최했다.

영양지역 학생상담자원봉사자연합회는 관내 학생들의 바람직한 자아인식 확립과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매년 각급학교로 찾아가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회원들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개보고회를 통해 집단상담 진행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집단상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상담 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수비중학교 전교생 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집단상담은 MBTI 성격유형 검사 결과를 활용한 학생들의 자기 이해

를 기반으로 같은 유형의 학생들로 모둠을 만들고 세계여행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성격유형이 같거나 혹은 다른 유형의 또래집단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인간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됐다.

이번 집단상담을 마무리하며 진행된 '5차 소감 말하기'에서 상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흥미로워요",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최고였어요" 등을 외치며 상담이 끝나는 것을 아쉬워했다.

김영희 교육지원과장(영양 Wee센터장)은 "영양지역 학생들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주시는 상담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집단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의 심

리·정서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리며 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덕교육지원청,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 교육!

영덕 소방서와 함께 하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영덕교육지원청 원항초등학교는 2023년 11월 7일 영덕 소방서와 함께 초등학교 전교생이 참여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응급처치를 통해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살려낸 사례들을 영상으로 접하며 응급처치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교육이 시작됐다. 응급처치 교육은 크게 심폐소생술, AED사용, 복부 밀어올리기로 나누어서 진행됐다.

심폐소생술, AED사용, 복부 밀어올리기 모두 정확하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론 수업과 함께 실습 수업도 진행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심정지 사고, 기도 폐쇄 사

고에 대비한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 방법을 체득할 수 있었다.

이번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가한 3학년 김OO 학생은 "모형을 이용한 실습을 통해 머리 속에 있던 내용을 연습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이야기했다.

원항초등학교 교장 서정숙은 "이번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서 사고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내가 직접 행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우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라고 했다.

장문화/기자

교육부장관상 제11회 전국서석예술제

본선, 결선

대회일시 장소
2023. 12. 10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대회참가비 무료

주최 전국서석문화예술진흥회

참가부문 피아노, 성악, 관현악 (WWW.KJATOO.COM)

심사위원
현직 음대교수 및 사계권위자 6명~13명 이내로 구성

연주곡목
자유곡 중 학년 별 수준에 합당한 한국 만 선택 임포로 연주함

협찬 국기트로피

지역별 시상기관 및 시상내역

상명	수상기관	수량	상명	수상기관	수량
종합대상	교육부장관상	1매, 트로피	학년대상	전남도교육감상	7매, 트로피
저·고학년대상, 중·고대상	서울 (대회장상으로 시상)		저·고학년대상, 성악, 관현악대상	광주시교육감상	7매, 트로피
저·고학년대상, 중·고대상	경기도교육감상	3매, 트로피	저·고학년대상, 중·고대상	경남도교육감상	5매, 트로피
저·고학년대상, 중·고대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상	3매, 트로피	저·고학년대상, 중·고대상	경북도교육감상	3매, 트로피
저·고, 중·고대상 성악, 관현악대상	부산시교육감상	5매, 트로피	학년차상	광주시서부교육장상	7매, 트로피
저·고, 중·고대상 성악, 관현악대상	대구시교육감상	4매, 트로피	학년차상	광주시동부교육장상	7매, 트로피
저·고학년대상, 중·고대상	인천시교육감상	3매, 트로피	저·고학년대상, 중·고대상	대전시교육감상	5매, 트로피
			저·고학년대상, 중·고대상	전북도교육감상	4매, 트로피
결선최우수상	대회장상(상장만 시상)				

본, 결선에서 최우수, 금, 은, 동 대회장상으로 시상

◆ 본선, 결선 진출자 중 위 시상에 해당 되지 않은 학생은 대회장상으로 시상 함.

◆ 장학금 = 교육부장관상 (종합대상) -100만원, 관현악최고점수(1명)-30만원, 성악최고점수-30만원 장학금지급 (장학금은 전국서석문화예술진흥회에서 지급합니다.)

◆ 위 시상은 각 시, 도별 신청 중이며, 기관 사정상 상이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충북도, 친환경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 첫삽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
친환경설계,
품질·성능평가, 인증 지원



충청북도는 13일 청주 현도산업단지에서 친환경모빌리티 부품의 재제조 기술지원을 위한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장섭 국회의원, 산업부, 충청북도, 청주시, FITI시험연구원,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한국자동차재제조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는 2022년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9억원, 지방비 100억원, 민간 45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244억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사용후 부품의 친환경설계, 품질·성능평가, 품질인증 지원 등 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센터와 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FITI시험연구원이 사업을 주관하고, 각 분야 순환경제 전문가인 충북테크노파크와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한국자동차재제조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이 참여해, 사용후 부품의 순환성을 용이하게 개선 및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 시제품제작, 신뢰성·수명 예측 평가, 재제조 품질인증 등 다양한 기업지원을 수행한다.

향후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가 준공되면 센터를 중심으로 재제조 제품의

성능개선 및 품질·안전성 향상, 재제조 기술 다각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특히 본 센터는 친환경모빌리티 배터리와 구동모터를 중심으로 순환경제 기술지원 사업모델을 완성(1단계, 구축기)하고 2단계(성장기), 3단계(확산기), 4단계(안정기)를 진행하여 충북 중심 순환경제를 전국으로 성과확산을 통해 타 산업 재제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충북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충북형 순환경제 모델 구축을 위해 '충북형 순환경제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설정하고 중점 육성하기 위해 방

안 마련 중에 있어, 오늘 착공하는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가 국내 최고의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시장변화에 능동적인 역할을 물론 충북형 순환경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심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 정선용 행정부지사는 "친환경 모빌리티의 수요 및 보급 확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따른 자원부족과 그에 따른 재제조 시장 확대 등 순환경제 산업의 지속성장이 전망된다"며 "순환경제로의 전환 대응과 우리나라 재제조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포스텍,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이끌 '글로벌 대학' 최종 선정

이차전지 등 신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등 지역과 대학 동반성장 노력 결실

포항시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선도 대학으로 교육부가 추진한 '글로벌 대학 30' 사업에 포항공과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13일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는 '2023년 글로벌 대학 본지정'에 대한 평가 결과 포스텍을 비롯해 10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

'글로벌 대학'은 정부가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대학의 경계를 허무는 과감한 혁신으로서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도할 대학을 선정해 향후 5년 동안 1,000억 원의 투자와 규제혁신 등을 우선 적용하는 사업이다.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인재를 갖춘 연구중심대학 포

스텍은 △3무(無) 경계 수요자 중심 교육 혁신 △지역 전략산업 혁신과 글로벌 선도 △신산업을 창출하는 글로벌 창업 퍼시픽 밸리 구축 등 '혁신과 글로벌화를 선도해 지역 번영과 국가 미래산업의 근간을 만드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대학'을 목표로 하는 실행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포항시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 글로벌 대학으로 포스텍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글로벌 대학 사업의 후속 조치로 지역기업·유관기관·경북도와 함께 '글로벌 대학 지역혁신협의회'(가칭)를 구성해 향후 5년간 글로벌 대학 30개 사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시는 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기

위해 포스텍을 포함한 지역대학과 연합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대학이 답을 허물고 지역사회에 녹아들어 지역과 대학이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글로벌 대학 30은 지역의 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거점을 키워내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목표가 담겨 있는 사업인 만큼 포스텍의 최종 선정이 더욱 의미가 크다"며, "글로벌 대학과 함께 시에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를 조속히 도입해 지역 불균형과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텍 연구중심대학을 적극 추진해 국가 하이오일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핵심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경남도,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에서 경남 홍보관 운영

16일~18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경남도·18개 전 시군 참가



경상남도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에 참가해 도와 18개 전 시군이 참여하는 '경상남도 공동 홍보관'

을 운영한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는 정부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우수 일자리 정책을 홍보하고 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개최되며,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경남도는 이번 행사에서 '더 좋은 일자리로 모두가 업(UP) 되는 경남'을 주제로 ▲ 조선 분야 심각한 구인난 해소를 위한 경남형 조선업 플러스 사업과 경남 조선업도약센터 운영 ▲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경남 청년친화기업 선정 등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취·창업 기반 강화 ▲ 신중년 일자리 전담기관인 경남행복내일센터 운영을 통한 신중년 재취업 활성화 등 경남만의 특색 있는 우수 일자리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홍보한다.

특히, 조선업 구인난 개선을 위한 경남형 조선업 플러스 사업과 경남 조선업도약센터 운영사업은 올해 정부 공모사업으로, 전국 최다인 국비 11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취업정착금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

원사업을 통해 5,442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여 도내 조선업계 재도약 발판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우수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정책, 창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 미래 신산업 집중 육성, 구인난 개선을 위한 외국 인력 도입 확대 등 도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과 우수 일자리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릴 경남의 주력산업과 투자 장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전 시군과 함께 운영하는 공동 홍보관을 통해 경남만의 특색있고 차별화된 전시로 관람객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정부 및 전국 지자체에 경상남도의 핵심 정책과 우수 사례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인력과장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일자리 우수정책 및 주요 혁신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향후 경남도의 일자리 정책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재현/기자

인천시, 주도의 내향 1.8부두 재개발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

2023년 사업계획 제출·2025년 실시계획 승인 추진

인천광역시시는 11월 14일 글로벌도시국가간담회를 열고 인천항 내향 1.8부두 재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인천시는 '인천항 내향 1.8부두 재개발 공동사업 시행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천시를 대표로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가 함께 공동사업 시행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으며, 현재는 공동사업 시행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다.

재수립된 사업계획은 오는 12월 해양수산부로 제출될 예정이며, 재정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절차를 내년 1월 15일 예정일이다.

인천시는 내향 1.8부두 재개발 대표 사업시행자로서 대한민국 항만 재개발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방침으로, 관련 행정절차



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류윤기 인천시 글로벌도시국가장은 "인천시 주도로 인천항 내향 1.8부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사업추진 동력확보 및 제물포대상스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경북 세계유산을 통해 지방시대를 견인하겠습니다!

핵심과제

- 외연확장**
가야고분군(고령 지산동 고분, '23.9. 등재유역), 태실, 한지, 활문화 등 신규 발굴
- 맞춤형 관광자원화**
신라왕경 역사가로길, 하회권 퀸로드, 서원·산사 명품순례길 조성
- 디지털 대전환 선도**
천년 신라왕경 디지털(메타버스) 복원, 천년 유교경전각 건립
- 문화유산 생태계 혁신**
디지털 콘텐츠 산업클러스터 조성, 답러닝 기반 전통기록물 해독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

해양치유 1번지 치유의섬 '완도'
**해양치유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세요**

완도해양치유센터
Wando Marine Healing Center

2023년 11월 24일

GRAND OPEN